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 그 은혜를 무한 감사하며 오며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모든 일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8월 5일 (토) 제 164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의심의 늪 지나 울창한 신앙세계로 가라!

바나리서치, 미 크리스천들 2/3 신앙에 대해 의심, 극복하면 영적 성장 이룬 설문결과 발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의심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의심 바이러스에 걸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우리들은 모두 어느 정도는 보건자들이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바이러스가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까지 파괴할 정도의 치명적인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느냐 못 막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의심하면서도 그 의심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해결할 받지 못해 더 큰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나도 큰 확신을 갖고 싶고, 의심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해답보다

는 질문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오히려 건강한 성도들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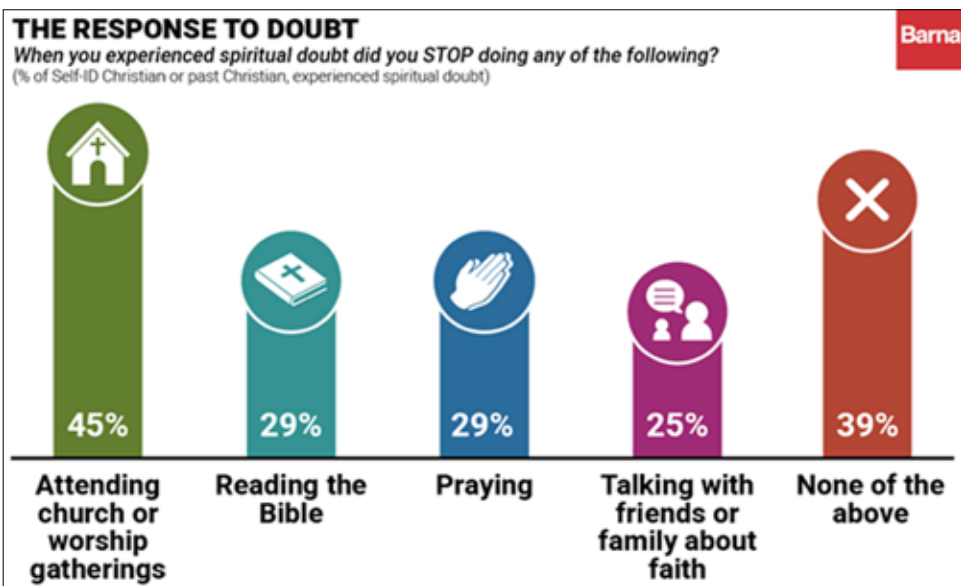
바나리서치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 중 2/3가 한번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았다(Two-Thirds of Christians Face Doubt). 그러나 정확하게 그 문제들에 씨름하면서, 목회자나 가족들의 도움과 기도를 받으면서 해결해 나갔을 때, 더욱 더 강건해졌다.

의심을 "바이러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사람 들 중 65%는 현재나 과거에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 중 26%는 아직까지 의심의 미로 안에 빠져있고, 40%는 의심과의 한판 싸움에서 살아남아, 그 결과 믿음이 훨씬 더 풍성해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놀랍게도, 35%는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실제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 19%는 아직까지 의심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지만, 교회내의 상담 시스템이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면역을 회복하게 됐다는 결과다. 이들 중 42%는 또 의심의 시련을 통해 울창한 신앙 세계로 이르게 됐다.

건강한 사람이 심한 감기에 걸리게 되면, 일상생활 중 무엇인가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의심 바이러스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방해 공작을 벌인다. 그 중앙도적인 것(45%)은 다니던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것이다. 정든 교회를 멀리하는 증상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실질적인 크리스천들(36%)이나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33%)에게서도 보편적으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심은 관계를 단절시키고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게 만든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29%)과 기도(29%)를 그만두게 하고, 영적 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털어 놓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게 만든다



바나리서치, 의심에 관한 도표.

(25%). 한마디로, 의심 바이러스의 특성은 사람을 골방으로 자꾸만 밀어 넣고 혼자서 감동하고 방황하게 만든다. 결국 이처럼 교회나 가족, 친구들과부터 격리돼 더욱 더 의심의 질퍽한 늪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심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항체 형성이 요구된다. 항체 형성을 위해, 40%는 당장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영적 의심을 털어 놓고 도움을 받고, 19%는 자신의 배우자를 의지한다. 22%는 영적 난민처럼 교회공동체에서, 29%는 성경에서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적 바이러스에

침투했을 때 불과 18%만이 즉각적으로 목회자나 영적 리더에게 대안이나 해답을 찾는다라는 사실이다. 결국 영적 의심에 물든 교인들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의심 가능 공간(safe spaces for doubt)"을 만들어야만 한다. 좀 더 부연하자면, 우리는 교회에서 약간이라도 의심의 말을 하면 믿을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두려워 절대 그런 말도 안 하고 또 서로 간에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데, 이것은 사실 아주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의심이 있고 질문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질문이 많아 많이 배우는 법이다. (3면으로 계속)

아듀, 캘리포니아!

LA타임스, 리버럴한 캘리포니아 떠나 텍사스 정착하려는 보수 성향 미국인들 보도

"제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이 동네 선생들의 리버럴한 교육에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막내아들이라도 구하고 싶어요." "캘리포니아의 리버럴들은 제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더는 이런 구속과 사회주의 환경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다음 장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보수주의자들이 폴 채벗에게 보내온 이메일이다. 43세의 공화당원인 채벗은 이들에게 텍사스 북부의 콜린 카운티로 이사 오라고 권유한다. 채벗 자신도 작년 말 선거에서 두 번 낙선한 후, 고향인 캘리포니아를 뒤로 하고 콜린 카운티에 정착했다. 그리고 올해 5월, 자신처럼 "블루 스테이트-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주"를 벗어나고자 하는 보수주의자들을 돕기 위한 회사를 창업했다.

이주를 원하는 고객과 "레드 스테이트-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주"의 부동산업자들을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수익 모델로 삼는 이 신생 기업의 미래는 아직 알 수 없다. 아직 실제로 중개료를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 중인 미국에서 채벗의 회사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벌써 1천여 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가장 문의가 많은 지역은 바로 텍사스 주의 영원한 라이벌인 캘리포니아 주다.

따라서 진보주의의 득세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보수주의자들이 고향을 떠나 텍사스로 이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LA타임스는 보도한다('I'm done': Fed up with California, some conservatives look to Texas).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나고 자란 채벗은 보수 성향 블루칼라 커뮤니티의 붕괴를 직접 목격하면서 환멸을 느꼈다고 말한다. 공립학교가 망가지고, 범죄는 늘어나고, 주민들은 복지에 의존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에게 최후의 한 방은 낙선이었다. 이라크 참전 용사이기도 한 채벗은 군사 기지 재유치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공약, 생명 존중, 가족 우선, 신앙 존중이라는 가치 하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11% 이상의 차이로 패하고 말았다. 2014년에도 낙선했지만 그때는 표차가 훨씬 적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리버럴이 무슨 잘못을 해도 잘못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그는 아내와 네 자녀를 데리고 텍사스 주 콜린 카운티로 이

주했다. 새로운 주거 지역과 골프 코스, 인공 호수와 쇼핑몰이 들어선 이 동네에서 채벗 씨는 7, 80년대의 오랜 지카운티를 떠올린다. "여기는 그래피티도, 갭단도, 늘 머리 위를 맴도는 경찰 헬리콥터도 없어요. 꿈같은 생활이죠."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 1, 2 위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아메리칸 드림의 서로 다른 버전으로 오랫동안 경쟁을 벌여왔다. 캘리포니아 주는 높은 세금과 높은 수준의 복지, 강한 공립 대학교를 자랑하는 반면, 텍사스 주는 낮은 세금, 약한 규제, 제한적인 복지를 내세운다. 미국 사회의 문화 전쟁에서도 두 주는 대표 선수 격이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김홍운 목사



2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보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13면 16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이해 임지석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7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영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7년 9월 1일(금) 오후6시
- 3 입학 시험 : 2017년 9월 2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강 부흥회 : 2017년 9월 5일(화) - 9월 7일(목) 저녁 8시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무언가를 배울 땐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NY타임스, 스미스여대에서 실시하는 “실패학” 신설 이유와 유익 소개(3)

도대체 언제부터 대학교가 고등교육을 가르치는 지성의 전당에서 정신건강 수련원 같은 곳이 되어버린 걸까?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말한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를 치료하고 치유하기 전에 왜 그토록 심각한 문제가 될 만큼 학생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건지 그 원인을 좀 더 살펴보고 싶기는 합니다.”

연구진은 어렸을 때부터의 자녀 교육과 전반적인 사회 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본다.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노심초사한 나머지 과잉보호를 일삼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가 많은 세상이다. 스미스 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장인 레베카 쇼는 지금 대학생들이 “누구나 집에 가면 어렸을 때 어딘가에서 받은 트로피들이 몇 개씩 있는 세대”라고 설명한다. 어렸을 때부터 명문대학교 입학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한, 특히 중산층 이상 가정의 아이들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목표를 세워놓고 멈추지 않는 러닝머신 위를 달려왔다. 선행학습

조정 과정을 거친다고 진단한다. 스미스 대학교에서는 이를 “특별한 눈송이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다들 고등학교 때는 소위 난다 긴다 하는 학생들이었죠. 학교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다른 것도 다 학교에서 최고였을 테니까

는 걸 잘 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과 사진을 보다 보면 우리는 또 너무나 쉽게 ‘나만 빼고 전부 다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 빠지곤 한다. 2학년인 19살 제이시 그릴리가 말했다.



‘특별한 눈송이 증후군’, 소셜미디어도 도움 안 돼 “바쁘게 살지 않는 인생은 한심한 인생” 분위기...

에 익숙한 아이들은 항상 낙오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시몬스는 이를 영화 “헝거 게임”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에 비유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걱정은 막막함을 배가시킨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은 아직도 유효한 건지, 졸업 후에 일자리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막함은 특히 집안에서 처음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학비는커녕 집에 생활비를 부쳐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 아니면 그저 ‘내가 경쟁을 뚫고 입학한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다양한 선발 방식 가운데 운이 좋게 맞아떨어진 학생 아닐까?’ 같은 식의 괜한 자괴감만으로도 충분한 스트레스가 된다.

“저는 저소득층 가정 출신이에요. 무척 낙후된 저희 동네에 이웃은 대부분 흑인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더더욱 잘해야 한다는 압박 같은 것이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곤 해요.”

스미스 대학교 3학년 학생인 19살 아라비아 시메온의 말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언론정보대학 학부 교육 부처장인 에이미 조던은 우등생 소리를 들던 많은 학생이 “제일 똑똑하고 우수한 학생”이란 꼬리표를 잃게 되면서 일종의

요, 특별대우를 받고 자랐죠.”

20살 카이 셸리는 학교 카페에 앉아 말했다. 졸레카 모시아와 시메온, 랭카스터가 그녀의 말에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대학교에 왔어요, 자, 고등학교 때처럼 다시 돋보이는 학생이 되고 싶죠. 그런데 대학교에 와 봤더니 다 저처럼 특별한, 대단히 뛰어난 친구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전부 다 특별하죠. 그러다 보니 결국 누구도 특출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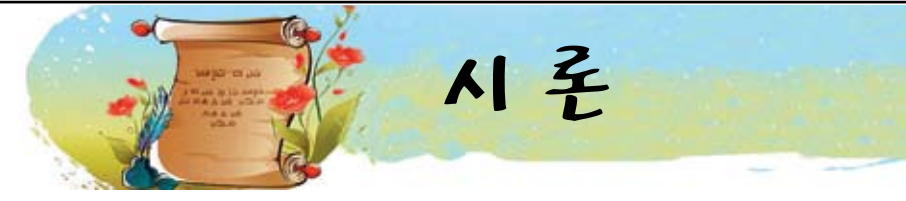
소셜미디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구나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대학교에서, 아니 솔직히 인생 전체를 통틀어 아무런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삶이란 있을 수 없다

여기에 바쁘게 사는 것을 추켜세우는 문화도 한 몫 한다. 문화랄 것까지 없다고 해도 적어도 어쨌든 ‘지금 상태’를 남들에게 드러내도록 해놓는 것 자체가 이런 생각을 부추긴다. 스미스 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의 스테이시 스타인박은 이렇게 설명한다.

“무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거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지 않은 인생은 가지 없는, 한심한 인생이라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죠. 어떤 의미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간주될 정도예요.”

시몬스는 이를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4면으로 계속)



시론

두 장례사



김봉운 목사 (벽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7월 초 필자가 사는 벽스카운티에서 네 명의 청년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그들은 둘이 19세 나머지는 20세, 21세였다. 그들이 다닌 중학교 고등학교에 필자의 교인들의 자녀들도 다녔다. 교인들과 함께 그들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사무엘, 또 다른 하나는 나발이다. (1절)“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였다.” (38절)“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장례식을 접례하면서 고인에 대하여 말할 때 은혜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할 말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고 더러는 불신자들도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그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에 대한 장례사는 1. 흠이 없는 삶(flawless)(삼상12:4)(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암재하지 아니하였고 뉘 손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까) 2. 쉬임이 없는 기도(ceaseless)(삼상12:23,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3. 다함이 없는 충성(endless)(삼상7:15,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이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았다. 참으로 부러운 은혜를 받은 분이였다.

반면 나발의 장례사는 어떠한가? 1. 불량한(wicked)사람이었다. 이것은 그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그에 대하여 한 말(17절)이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25절)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은 그가 평소 얼마나 사악하고 아비하게 살았는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불량하다는 말은 “아비하다. 사악하다. 사단의 자식과 같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망자로서 힘들게 지내며 도움을 청했을 때 다윗을 모욕한 그의 인간됨은 힘있어 보이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 보이는 자들은 짓밟는 모습이다. 2. 인색한(churlish)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를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3절)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비뚤어졌다. 인색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큰 부자였는데(양이 삼천, 염소가 천) 다윗과 일행이 밤낮 답이 되어주므로 안전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마땅히 해야 할 감사조차도 인색한 사람이었다. 2003년에 영등포역에서 선로 밑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고 자기는 다리가 잘린 김행균이라는 철도원이 있다. 몇 년 후 찾아간 기자가 그 후에 아이의 부모가 찾아왔느냐는 질문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마땅히 해야 할 감사에 인색하지 않은가 돌아보자. 스스로 큰 자, 부자, 지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가 우리를 만든 것이다. 3. 미련한(foolish) 사람이었다. 이것은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었다(25절). 나발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함께 살아온 아비가일은 그가 자기의 이름처럼 미련하다고 말했다. 미련한 나발은 자기가 모욕한 다윗에게 죽을 뻔했는데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 때문에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가까스로 일을 수습하고 집에 와 보니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파티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왕이라고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이다. 특별히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돌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는 말씀은 너무 두려운 말이다. 누가 자기 영혼을 보고 이렇게 장담하며 명령할 수 있나? 누가 나는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나? 누가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하여 자신할 수 있나?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다. 첫째,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는 그 시간, 하늘나라에 갈 준비하고 살자. 지난 6월 11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차사고로 죽었다(Brandon Rogers, 29세, 의사, America's Got Talent에서 노래한 후 인기상승 중). 6월 12일에는 압축가스로 바늘 없이 주사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억만장자가 된 박사가 아침 산책 중 소파에 밟혀 죽었다(Brian Bellhouse, 80세, 옥스포드대학 교수).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둘째, 나발처럼 인색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다가 가자. 인간은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손을 펴고 죽는다. 잡아봐라 공기뿐인데 일생동안 잡으려고, 잡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주먹을 쥐고 살지만 갈 때가 되면 의사도 박사도 젊은이도 노인도 사무엘도 나발도 모두다 손을 펴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필요한 이웃에게 베풀 것만 영원히 남는다. 그날이 언제일지 서로 모르며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이웃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살다 갔으면...

pwkim529@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p>학위과정 Degree Programs</p> <p>ESL Program</p> <p>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p> <p>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p> <p>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p> <p>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p>2017년 항공학과 신설</p> <p>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p> <p>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p> <p>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p> <p>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p> <p>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p>
<p>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p>	<p>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p>

의심의 늪 지나 울창한 신앙세계로 가라

(1면에서 계속)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의미에서의 의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계속 의심의 문제와 씨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목회자나 영적 리더의 가이드가 요구된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의심의 안개에 빠지면, 38%는 친구, 25%는 성경, 16%는 교회 그리고 12%만이 목회자에게 찾아간다.

한편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해답은 바로 의심의 시련을 통해 정금처럼 단련되어진다는 사실이다. 바로 53%가 오히려 밀어닥친 의심의 쓰나미를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나 신앙이 더욱 강건해졌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8%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12%는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게 됐고, 7%는 신앙이 움추러 들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의심 바이러스는 바로 영적 성장을 야기하는 핵심이다.

결론으로,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오해는 의심 바이러스가 항상 영적 건강을 해친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심을 만들기 위해 일

부러 가던 길을 벗어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또한 수동적으로 의심 바이러스가 우리 믿음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도 안 된다. 그러나 믿기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 의심의 사용해서 최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사실이다.

의학적 비유를 들자면 마치 면역 예방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몸이 미래의 질병과 싸우도록 돕기 위해 의사들은 소량의 동일한 병

균을 우리 몸속에 침투시킨다. 그것은 나중에 그 질병이 당신을 위협할 경우 대항해서 싸울 항체를 미리 형성시키기 위함이다.

경건한 교사는 질문을 적극 권장한다. 반면 숨길 것이 있는 교사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어느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다. "단련된

믿음이 거대한 폭풍의 시련을 결코 견지 못한 타고난 믿음보다 훨씬 더 견고합니다. 영혼의 철학 같은 밤에 부서진 옛날 조각배에 끝까지 매달려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여행의 목적지까지 든든하게 받쳐줄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듀, 캘리포니아!

(1면에서 계속)

지난달에는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 주지사가 입양 기관이 게이나 트랜스젠더 부모 고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에 대한 반발로 주 정부 공무원의 텍사스 출장을 금지했다.

벗이 홍보하는 텍사스 주는 미국적 유토피아 그 자체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와 값싼 주택이 넘쳐나고, 세금은 낮고, 전통적 가족의 가치가 존중받는 곳이다.

그러나 실제로 두 라이벌 주 간의 차이는 생각처럼 크지 않다. 작년 기준 텍사스는

보다 더 낮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캘리포니아의 생활비가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만큼 훨씬 더 살기 좋은 동네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다.

한편 텍사스 일부에서는 이곳도 캘리포니아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도인 오스틴은 언제나 리버럴들의 오아시스와 같은 지역이었고, 휴스턴 역시 다양성을 갖춘 메트로폴리스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포기했던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진보 성향 정치인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채번의 콜린 카운티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는 도요자동차가 미국 본부를 캘리포니아에서 콜린 카운티로 옮기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교통 체증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이 강세지만, 기업들이 이주해오면서 민주당 성향의 주민들도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미트 롬니가 65%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는 이 동네에서 56%를 얻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번의 잠재적 첫 고객인 멜리사는 마음을 굳혔다고 말한다. 48세의 어머니인 그녀는 대학에서 심리학과 스페인어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 식당의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었던 캘리포니아의 현실에 크게 좌절했다고 말한다. 딸이 문학 수업에서 담배와 신경안정제를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책을 받아왔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멜리사는 채번의 소개로 콜린카운티에서 부동산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샌디에고 집보다 훨씬 큰 집을 70% 정도의 가격에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 기분이에요." 이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면, 채번 씨는 창업 이후 처음으로 수수료를 받게 된다.



그러자 텍사스 주지사 대변인은 "공무원 출장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도한 세금과 규제를 피해 텍사스로 빠져나오는 기업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채번의 고객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메일의 사용을 허용했지만, 인터넷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들의 불만을 거의 비슷하다. 경제적인 어려움, 범죄 증가, 총기 규제, 흡수권 관련 규제, 어린이 예방접종 의무화, 연방 이민국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법 집행 기관, 높은 세율, 부동산 가격 상승, 공립 교육의 약화 등, 이들의 눈에 "미국의 몰락"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다. 반면 채

266,600개의 일자리, 캘리포니아는 242,6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 신규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실업률은 두 곳 모두 5%를 밑돌고 있다. 중위 소득은 캘리포니아가 61,818달러로 53,207달러인 텍사스에 앞섰지만, 중위 주택 가격은 캘리포니아 500,200달러, 텍사스 167,100달러로 차이가 상당하다.

올 초 발표된 한 경기 관련 보고서는 캘리포니아를 3위에, 텍사스를 6위에 두었다. 텍사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대니얼 하퍼메시 박사는 경제면에서 텍사스가 캘리포니아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성공 목회란 무엇인가?(중)

옛날에 비해 요즘은 목자들이 한눈팔고 결근할 일들이 많아졌다. 갈 데도 많고 관여할 일들이 준비해졌다. 필자의 경우 서툰 목회였지만 안식년을 모조리 반납한 채 우직하게 교회를 지켰다. 총회장으로 총회를 섬길 때도 그랬다. 주중에 해외 출장이나 회의가 끝나면 반드시 돌아와 주일 강단을 지켰고, 오늘 밤 이국에서 돌아와도 다음 날 새벽기도를 인도했다. 그렇다고 그것이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목자의 목양 지침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목자의 마음이 탄 데 있으면 사탄이 먼저 알고, 양 떼가 감을 잡는다.

충신교회 부임 후 13년째 되던 해에 목회를 방해하고 일을 가로 막으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설득하고 사주하여 동지를 만들고 여세를 모아 필자의 목회에 간섭하려 들었다. 마침 그때 미국 서부에 있는 골지의 교회에서 청빙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그래 가면 되지, 여기만 교회인가. 아이들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쌍수로 환영한 다니 가야지. 그리고 내가 떠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네들이 혼쭐이 나겠지?'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자, 필자의 태도가 거칠어지고 교회 돌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건 목자의 태도가 아니다. 참 목자 주님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라며 회개하고 목양에 전력했다. 그리고 충신교회에서 목회 마침표를 찍기로 작심했다.

얼마전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분규, 분쟁, 분파, 분열을 거듭하며 흥역을 치르고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 한 때는 6천 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주보에 드러난 지난주일 예배출석 통계는 1천 여 명 정도였다. 신물 나는 교회 싸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 버린 사람들, 다른 교회로 옮겨 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얼굴에는 희색이 없었다.

그날 필자에게 푸념하듯 던진 어느 부부의 말이 지금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미국이 크고 부자 나라라고 하지만 저희는 정말 살기 힘들니

다. 사업도 힘들고 가게도 안 됩니다. 하루하루 지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더 힘들어요. 서로 험담하고 제 편 만들기 위해 전화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린 어디서 위로 받아야 하나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이다음 천당은 갈 수 있을지..." 필자는 말문이 막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치 나 자신이 주변인 양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뛰고 더는 그들과 대화를 이룰 수가 없었다.

흔히 이민교회 상황을 '척박하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한국교회도 비슷하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리더십은 흔들린다. 목회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대형화 되면서 기업형 구조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 교인들은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상실한 채 대들기, 따지기, 파헤치기를 즐기고 있다. 그래서 목회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교회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 그리고 대다수 그런 사람들일수록 개혁되어야 할 소지가 많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필자는 일기를 쓰지 않는다. 그것은 목회 감정 처리와 자아 조절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뇌리와 가슴에 쫓겨 활짝마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손이나 발에 받은 상처는 처치에 따라 치료가 쉽다. 그리고 고도화된 성형의학 덕분에 감쪽같이 성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개 때문에 받은 상처, 아무개가 던진 말로 입은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성형하기도 어렵다.

얼마전 초췌한 모습으로 변한 목회자를 만났다. 중병을 앓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한참 만에 그가 들려준 사연은 이렇다. 몇 가지 문제로 몇몇 당회원과 견해 차가 벌어졌고, 그 불씨가 점차 확대되면서 담임목사 배척운동이 벌어졌다. 그들이 내건 조건은 '교회를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생활비를 50퍼센트 감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iamcspark@hanmail.net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k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하나님을 체험하라!

“15분”이란 연극이 있었다. 막이 오르자 희망과 환희와 행복으로 가득 찬 젊은이가 나타난다. 그때 의사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젊은이를 진찰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5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 순간 청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전해 주고 가는데 그것은 박사학위를 수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때 배달부가 또 다른 편지를 한 통 놓고 간다. 수억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기뻐할 수가 없다. 자기 생명이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

편배달부가 또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승낙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1분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1분 동안 괴로워하다 쓰러져 죽음으로 연극은 막을 내리게 된다.

이것이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실체이다. 명예도 재산도 사랑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진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을 다 포함하지만 더 깊은 곳의 문제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쉽게 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마음에 누리는 평안을 확인해보면 된다.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마음에 평을 얻을 것이다.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지는지 아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 해결해주신다는 것인지 궁금하시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주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5장 12-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를 지나시는데 나병환자를 예수님께 나옴다. 당시 나병환자들은 철저하게 죄인 취급받았고 전염성 때문에 정상인 근처에도 다가가지도 못

했다. 이 나병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호소했다. 13절에 보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환자 몸에 직접 손을 대시고, 내가 정말 내가 깨끗하게 되길 원한다고, 나병이 떠나게 되길 원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

그런데 여기 나병환자가 고침 받은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 지를 말씀해주고 있다. 우리에게 몸의 나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병과 같은 죄가 있다. 나병은 누구에게도 드러내서도 안 되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병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죄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은밀한 죄가 우리에게 다 있다. 이것이 드러나면 큰 일나는 것이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정말 감추고 감추어야 될 죄가 우리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무서운 죄가 무엇인가?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그것으로 우리를 잠소한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

게 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죄 문제이다.

나만 아는 죄,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이건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하는 죄들. 아무도 만질 수도 없는 죄, 누구도 만져서 안 되는 죄들. 반복해서 회개하고 회개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겠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는 죄들.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때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호소하면 된다. 이것이 회개이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더러운 것을 드러내 놓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 점을 외면하거나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교도소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물었다.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소?” “감기 때문에 들어왔다. 어느 집에 도둑질 하러 갔다가 감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바람에 붙들렸지 뭐니까?” 그러더라. 핑계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 원인은 우리 안에

나병과 같이 숨겨진 죄 때문이다. 이 점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셨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떠난다.

십자가는 바로 마귀의 일을 파멸시킨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마귀의 무기를 다 빼앗아 버렸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했다. 십자가 복음은 귀신을 쫓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데서 해방된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새 삶이 시작된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때 주제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장덕상 목사
(한인개혁장로교회)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많이 식사(잔치)와 여행의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두 가지 일의 특징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 함께 인생길을 가는 사람을 반려자라 하고, 평생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한다. 반려자와 식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가?

누가복음의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의혹과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식사초대에도 가까이 응하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는 유난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의 여정을 길고 자세히 묘사한다. 이 장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그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시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장면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여행과 식사의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누가 그를 높이는가?

누가복음 14장에는 두 가지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 첫 번째는 7-11절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잔치자리에서 부끄러운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마치 생활의 지혜나 조언처럼 들린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조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비유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에 대한 비유인가? 이 장의 나머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안달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계심이 분명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정결을 유지하는지 보여주지 못해 안달했다. 주목받기 좋아하는 그들은 바로 앞 단락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

앉으라 하면,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포인트는 주인이 누구를 높이는가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그 잔치에 청하고 자 하시는가? 주인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정해 놓은 그 높

주는 예수님을 불편해 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사건건 그들의 기준을 뒤집으시고 불편한 사람들을 불러 거슬리는 행동을 하신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잔치의 비유는 사회생활과 처신을 잘하라는 조언이 아니다. 그런 것이라면 이미 예수님은 낙제점이다. 이 비유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앞세우는 데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자신들이 당연히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11절) 여기서의 포인트는 누가 그들을 높이느냐? 하는 것이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러나 청한 자가 와서 올라

는 자리에 앉을 자와 낮은 자리에 앉을 자의 순서를 뒤집으려 하신다!

만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면 나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이들은 그것을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배제할 바로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을 높이시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내세운 자기들만의 기준을 깨뜨리시는 것이다.

2. 값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이제 주님을 잔치에 청한 그 사람들에 대한 충고로 이어진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들에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

는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싶은가? 지금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의 무료 식사나눔 프로그램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집에서 열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잔치자리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청한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기준은 분명하다. ‘값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또 한 번 이제까지 누가복음에서 수없이 강조했던 그 은혜 받을 자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잔치에 청해야 할 사람들이다.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 아니다. 우리 말 번역에는 없는데 영어성경에는 계속해서 ‘your’가 나온다. ‘

이 이야기에는 근사한 잔치에 초대받고도 아주 무례하게 거절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들은 흔한 핑계를 댔다. 온갖 수고를 다해서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비용을 지불한 집주인은 뜻밖의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자기 식탁에 데려다 놓기로 결단을 내린다. 원래 초대받은 손님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렸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 비유의 의미는 분명하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큰 만찬으로 사람들을 소집하셨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기다려 왔던 그 순간이다. 마침내 시간이 되었다. 오례전에 초대받은 이들은 이제 서둘러 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온갖 구실을 대면서 거절했다. 사실 그들에게는 하

이제 주인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세상의 큰길과 산술타리로 나가서 예상에 없던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잔치로 불러 모았다. 그저 단순히 활동적인 이방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온갖 부정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을 불편하게 할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해야 할 일이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이 큰 잔치의 비유에서 주인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해야 할 일은 ‘내 사람 챙기기’가 아니다. ‘자격이 되는 괜찮은 사람 찾기’가 아니다. ‘값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청하는 것이다. 왜? 그것이 주인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비유의 뒤에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4:25-27)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식탁에 우리 삶의 여정에 누구를 청하고 누구를 밀어 내뱉고 있는가? 우리가 내 사람만을 챙기고,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특권 없는 자,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인의 초대는 그야말로 ‘은혜’인 것이다.

남 나라의 잔치보다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소, 자기 식구 챙기기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초대를 받고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너무 염치없고, 황송한 일이지만, 그래서 더 기쁘고 감격스럽다. 가난한 자, 특권 없는 자,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인의 초대는 그야말로 ‘은혜’인 것이다.

4.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원래 청함을 받았던 손님은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그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실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것’(소유)에만 쫓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값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라

(누가복음 14장 7-24절)

무언가를 배울 땐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2면에서 계속)

시몬스는 아이스크림과 빙고 게임으로 학생들을 불러 모은 뒤 교내 잔디밭에 둘러앉아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대학생생활문화원을 찾은 학생들은 먼저 아이스크림 선대를 짙는다. 여

기의 빙고 게임은 어느 빙고 게임과는 조금 다른데, “스트레스 올림피아”라는 이름이 붙은 게임이다. “오늘 밤까지 보고서 20장 마감”, “할 게 너무 많아서 끼니도 거름”,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온다” 같은 식의 카드가 쓰여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상태에 따라 빙고 카드를 고른다.

20살 3학년 학생 케이시 헤록스는 “누가 더 고통스럽게 사는지 경쟁하는 듯 한 느낌”이라고 말한다. “내일 시험이 한꺼번에 3개나 몰려서 걱정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난 시험 5개야, 오늘 하루 종일 에너지 드링크 말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 게다가 집에 강아지가 아파서 공부

도 잘 안 돼!”라고 하는 식인 거죠.”

여름방학을 몇 주 앞둔 시점은 이미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거의 극에 달해 있다. 여름방학 인턴십이나 졸업 후 일자리를 준비해야 할 원서, 추천서, 네트워킹 등에 이미 학생들은 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 군데도 합격하지 못하면 어쩌죠? 아니면 합격은 하더라도 정말 가시 싫은 곳뿐이라면 어쩌죠? 21살 2학년 모시야는 여름방학 인턴이나 방학 때 경험을 쌓는다고 몇 달간 회

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익숙지도 않을뿐더러 그 과정도 너무 겁이 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제 친구들과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했죠. 도움을 청하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수도 없이 떨어지고 거절당하는 건 정말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죠.”

랭카스터도 말했다. “불합격 통보를 하나하나 실패라

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근심걱정을 원 없이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실패해도 되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krccpactor@hot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5세 소녀 강간한 모슬렘에 대한 충격적 아이다호 주 법정 판결

지난 6월 2일에 아이다호 주 트윈 폴(Twin Fall)에서 3명의 무슬림 이주민 남자아이들로 인해 처참하게 5세 소녀가 7월 중순경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다호 주의 진보주의 판사(Judge Thomas Borseson)가 강간범들도 "어린 남자아이들"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 가족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피해자 가족의 입을 막는 불의하고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내려져서 보수 쪽 뉴스를 듣고 있는 미국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3명의 모슬렘 소년들의 나이가 나중에 밝혀진바 7세, 10세, 14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5세 소녀인 자이라(Jayla)에게 오랄(oral), 아널(anal)로 강간하고 심지어 소녀의 몸을 소변까지 봤다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마스 보레손 판사는 그들에

호소하고 억울해했습니다. 동시에 3명의 무슬림 강간 남자아이들 측은 그들의 정신 치료 담당자들을 동원시켜서 그들을 방어해주고 칭찬까지 하며, 이번 법원 절차로 인해 오히려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참고로 무슬림 남자들이 미국여성을 강간할 때마다 법정에서는 그들의 정신치료를 운운하며 가벼운 처벌만 하고 풀

이라 엄마가 강간사실을 언급하자 자이라의 변호사가 도리어 자이라 엄마를 공격함으로써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이 법정의 판사와 자이라의 변호사(한국식으로 하면 국선변호사임) 등 모두가 자유진보주의자들로서 Politically Correct(정치적 정당성, 무슬림을 폄하한다는 개념) 하고자, 무슬림들 편에 선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각본에 의해 한 쪽의 주장만 듣고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에 급급한 판사와 국선변호사의 모습은 이 나라의 정의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슬렘이든 누구든 미국의 건국 시절부터 목숨을 걸고 지켰던 정의와 공의의 자유를 짓밟는 자들이 만연하다면 그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살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 완벽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의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

5세 소녀 강간한 무슬림 남자아이 3명, 되레 피해자로... "성적음란행위" 로만 처벌 샤리아법 따른 판결...무슬림 '권리 자유' 보호위해 미 시민 권리와 자유 밟는 격

게 매우 가벼운 처벌만 내리고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준 이유는 토마스 판사와 자이라를 변호하기로 했던 수석 대리인 기소 변호사(Janice Kroeger)까지도 강간한 남자아이들이 미성년자이며 미국을 잘 모르는 것 때문이며 정신 치료를 받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무슬림 남자아이들이 오히려 피해자이고 특별히 가장 나이가 적은(7세) 무슬림 남자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황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자이라는 법정 절차에 걸쳐 거의 언급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토마스 판사도 기소 변호사였던 Janice Kroeger도 자이라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자이라의 엄마만이 가슴을 치며

어준 했던 케이스들이 지난 오바마 정부 당시 여러 번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토마스 판사는 5세밖에 안된 자이라가 이 3명의 강간범 아이들에게 당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과 상환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부당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에서 3명의 강간자 남자아이들에 대한 벌금도 완전히 줄여줬을 뿐 아니라, 집행 유예까지 받게 했는데 무슬림 남자아이들은 "강간범죄"가 아닌 "성적 음란행위"로만 유죄가 이번 법정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자이라를 언급하고 보호한 사람은 오로지 자이라 엄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

비록 자유진보주의 미디어는 법정과 자이라 부모들이 협상을 한 좋은 케이스라고 하지만 자이라의 부모님은 자이라가 강간 후로 심한 악몽을 꾸며 그 증세가 매일 악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더 항소할 수 없어서 슬퍼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자이라에 대한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무슬림 이민자들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유인하는 자유진보주의자들의 필사적인 시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당한 케이스입니다.

이슬람 코란과 샤리아법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것이 나쁜 것도 죄도 아닙니다. 이번에 아이다호 주는 미국 헌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샤리아법을 따른 케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심각하게 기도할 때라는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뿐만 아니라 미국 안팎에 들어온 무슬림들의 "권리,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던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밟는 안타까운 현실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해주시고,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을 위해 어린 자이라가 희생된 것 뿐 아니라 자이라의 가족이 당했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자이라가 빨리 회복되기 바라고 미국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행해지는 정의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구약의 십일조 제도는 옛 언약인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요 오늘의 신약시대에는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십일조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사나 신문기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얼바인에서 Lee

A: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일조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라기 3장 8-13절을 소개합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십일조는 (1)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관계에서 회개하고 울바로 십일조를 드림으로 언약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적절한 방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말라기서의 메시지는 느헤미야가 사라진 후 성전과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한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것을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자신만을 돌보며 포기해버린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십일조를 도적질하여 하나님으로 가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3)십일조에는 축복과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제 메시아이신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으로 시작된 새 언약 하에서 십일조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실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시골 목사가 십일조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복을 주시는지 안주시는지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한분이 밭에서 고추를 심을 때 한쪽 밭은 십일조를 드리고 고추를 심고 한쪽 밭은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십일조 폐기론은 예수님 말씀을 무시한 것

고추를 심어 시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두 밭에 고추가 잘 자랐고 고추열매도 잘 맺었습니다. 고추를 따기 전날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황소 한마리가 고추밭에 들어가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심은 밭은 다 짓밟아 망가뜨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가정은 축복을 받았습니. 그 후에 이 목사를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모셔갔고 목회를 잘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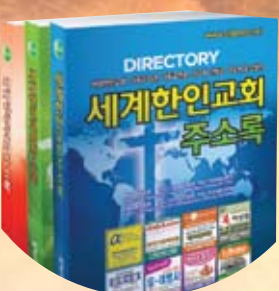
신약에서는 십일조란 말이 없 번 등장합니다. 세 번은 공관복음에서 일곱 번은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1)마23:23, 눅11:42 (2)눅18:9-14, (3)히7:2-10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1)십일조관습을 폄하하거나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십일조를 드림에 있어서 나타내보인 위선적인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2)예수님은 십일조의 의무를 성취함에 있어서 십일조의 본질적인 정신 즉, 십일조를 드리는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십일조를 통해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3)예수님은 오경의 십일조 규례에 새로운 것을 첨가하신 것이 아니라 제한적 의미에서 그 십일조 법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눅11: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므로 폐기되었음을 강조하며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오늘의 신자의 생활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는(구약의 불연속성) 목사나 성도들을 봅니다. 이들은 십일조 폐기론을 말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인본주의적 생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 2의 아담으로서 오경의 십일조를 인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십일조 법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경의 십일조 제도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해 새롭고 산 십일조가 되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십일조를 사용함에 있어서 구약에서처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 전체의 유지와 발전 및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다수의 직무자를 세워 십일조를 관리하게 하고 교회의 치리기관을 통해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전 교인이 십일조를 실천하면 교회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지상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성도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8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8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록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7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7년 9월 30일**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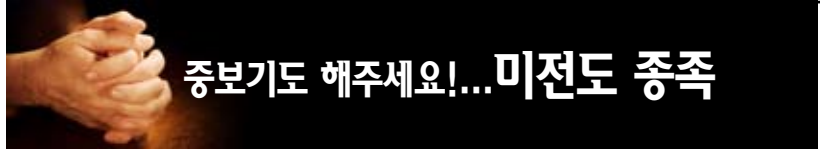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무 료 리 스 팅 신청 서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5.8cm	\$350.00
	전면1/8	7.7cm × 11.7cm	\$250.00
		15.5 × 2.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주소록 광고담당 직원 모집: "2018년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에 삽입되는 광고 세일즈 할 분을 모집한다. 좋은 조건의 커미션을 제공한다. 지역은 미 전역과 한국, 전세계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718-886-4400)과 LA(323-665-0009), 이메일(뉴욕 nychpress@gmail.com, LA lachpress@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티벳인(TIBETANS)



부리고와 발티스타니 보티아(또는 발티), 두 종족은 티벳인의 후예이며 파키스탄 북부의 카라코람산에 거주한다. 이 지역은 발티스탄(Baltistan)으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교로 개종한 티벳 종족들은 두 종족만 알려져 있다. 이들이 이슬람 개종은 무역, 외교관계, 군인들의 습격, 무슬림들의 이주 등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게 된 결과다.

서기 7세기부터 중국 통치가 시작되던 1700년대에 이르기까지 티벳인들은 독립 국가를 형성했다. 1911년 티벳인들이 독립을 단행했

으나, 1950년에 중국이 다시 침략해 티벳이 형성하고 있던 전략적 국경지역을 감독하고자 했다. 티벳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자치구역이 되던 1965년, 수천 명의 티벳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Dalai Lama)'를 따라 인도로 피난길을 떠났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기 수세기 전부터 부리고 족과 발티스타니 보티아 족은 이미 파키스탄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발티(Balti) 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주는 점차로 1840년 시작된 영국-인도 제국으로 흡수됐다.

삶의 모습

파키스탄의 티벳인들이 무슬림이 된지 500년이 넘었지만, 티벳불교의 뿌리는 그들의 의상, 음식, 민속, 언어에 배어있다. 발티스타니

보티아와 부리고 모두 7세기에 사용됐던 고전적 티벳어와 유사한 티벳 고어의 방언을 사용한다. 이들은 티벳-버마 언어군 중에서 가장 서쪽으로 뻗어온 종족들이다.

1947년 이전에는 발티주 사람들과 이웃한 인도인들 사이에 무역과 여행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라지면서 발티스탄(티벳인) 사람들은 더욱 고립됐다.

티벳인들은 마른 땅인 카라코람산에서 살아가고 있다. 티벳인들이 사는 지역은 중국의 서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장소인 케시미르 지방의 북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다. 산은 거친 바위투성이며, 1년 강우량은 6인치 밖에 되지 않는다. 티벳인들은 눈이 녹은 물에 의존하여 농작물에 물을 낸다. 물이 충분한 곳에서는 보리, 밀, 기장 등을 생산한다. 여름의 높은 온도는 다양한 과일의 재배도 가능하게 한다.

티벳인들은 이 지역의 다른 종족 집단과 같이 유목민족은 아니다. 대신, 자신들의 가족들을 목초

지에서 계절이 바뀌에 따라 다른 목초지로 옮기는 한다. 여름 기간 동안에는 목자들이 고산 목초지를 찾아 나선다. 모든 가정들이 젖소와 야크가 섞인 '즈모(zmo)' 양귀를 소유하고 있다. 매일의 양식이 이 동물의 젖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장인 계급의 오랜 전통이 티벳인들 사이에 남아있다. 장인 계급에는 대장장이, 가구제작자 등이며 이 장인들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며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버터와 밀을 받는다.

티벳인 공동체의 생활터는 인더스강 지류에서 형성된 비옥한 좁은 계곡이다. 촌락에서는 돌과 흙으로 만들어진 집들이 좁은 길들로 연결되어진다. 파키스탄에 있는 전형적인 티벳 가옥들은 3층으로 이뤄진다. 지하층과 몇 개의 방이 있는 지상층, 세 번째 층을 형성하는 평평한 지붕, 밤에는 집의 양, 염소, 야크 등을 지하층이나 '발티(balti)'에 둔다. 발티라는 것은 발티족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다. 여름에는 가족들이 지붕에서 일과

다른 활동 등을 한다.

1900년대까지 티벳족은 지역 통치자들의 지배 하에서 반독립적인 생활을 했다. 오늘날에는 파키스탄 행정부 관할 아래 연방정부에서 지명한 지역 감독관이 지역을 다스린다. 발티스탄족 사회에는 범죄가 거의 없다.

파키스탄에 사는 티벳인들은 전통적으로 양모 옷을 입는다. 남자들은 흰색의 긴 옷을 입으며, 여자들은 검은색의 옷을 입는다. 남자와 여자 모두 쫓, 딸기류 열매, 나뭇잎 등으로 장식된 모자를 쓴다.

신앙

티벳인들은 수세기 전에는 불교도들이었다. 1400년대에 이슬람교로 개종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신실한 무슬림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근래에 이슬람 이전의 민족 전통과 이슬람 사이의 긴장이 증가되고 있다. 예로, 무슬림 티벳인들은 "레포케사르(Lepo Kesar)"라고 부르는 그들의 전통적 서사시를 연가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

다. 이러한 사회는 모두 공연되는 데 8일이 걸리며, 모든 중앙아시아와 티벳에서도 나타나는 전통이다. 그러나 이 전통이 근래에 티벳인인 무슬림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사이의 첨예한 논쟁의 소지가 됐다. 많은 티벳인들이 자기 종족의 정체감에 중요한 두 요소인 티벳 전통과 이슬람 사이에서 분열되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파키스탄의 티벳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서만 발견될 수 있는 참 정체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방언으로 번역된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발티스탄의 남동쪽 국경은 분쟁 지역인 케시미르와 접해있다. 그래서 14년 동안 많은 외국 여행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다. 이것이 티벳인들을 위한 선교사역에 방해가 됐다. 이 파키스탄의 티벳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시킬 것"

앞으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미군 복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성전환자의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현역) 장성 및 군사 전문가들과 협의한 이후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는 간곡한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 "우리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유발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는 없다"고도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성전환자 군복무 전면금지 방침은 성전환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현재 복무 중인 미군 내 성전환자들로 인해 현역 복무규정과 관련된 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에릭 페닝 육군장관은 지난해 10월 성전환자 미국인의 공개적인 군 복무 허용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페닝 전 장관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군대 문화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공개)'하고도 미 행정부 역사상 최초로 육군장관에 올랐다.

"레즈비언 웨딩드레스 안 예요" 소신 폄자 결국 문뜬아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드레스 제작을 거부한 미국의 신부숍(bridal shop)이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압박에 시달린 끝에 한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크리스천인 신부숍 주인은 "믿음과 신념에 따라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가게 운영은 물론 자신과 가족의 신변마저 위협 받게 됐다.



논란은 줄리 앤 사마나스(30)라는 여성이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W.W. Bridal Boutique(이하 WW 부티크)'이라는 신부숍이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웨딩드레스 제작을 거부했다고 알리면서 시작됐다.

내년 3월 결혼식을 앞둔 사마나스와 새년 케네디(34·여) 커플은 지난 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블룸스버그에 있는 WW 부티크에서 웨딩드레스를 맞추려다 거절 당했다. 신앙심 깊은 크리스천들이 운영하는 WW 부티크는 2014년에도 동성 커플의 웨딩드레스 제작 요청을 거부해 주목을 끌었던 곳이다.

사마나스는 관련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차별은 옳지 않다'(#discriminationisnotcool)는 해시태그와 함께 WW 부티크의 업체명을 명시했다.

이번 논란은 동성애자들에게 우호적인 매체인 허핑턴포스트 등이 폐쇄 글을 거론하면서 확산됐다. WW 부티크의 공동 소유자인 빅토리아 밀러는 허핑턴포스트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우리 항상 존경심과 품위를 잃지 않고 고객들을 대해왔다"면서 "동성애 커플의 결혼식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확신에 따라 함께 할 수 없게 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WW 부티크의 설명에도 동성애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WW 부티크의 페이스북 관리자를 맡고 있는 리치 펜코스키 회사에 따르면 신부숍 측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동성애 지지자들이 보낸 음성 메일에는 "너랑 너희 가족으로 찾아갈 거다" "너희 가게를 부수고 너희가 우리 기분을 망친 것만큼 우리도 너희 기분을 망쳐주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펜코스키 박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워리어즈 오브 크라이스트'(Warriors for Christ) 페이지에서도 동성애 지지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화기도 했다.

사마나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WW 부티크의 제작 거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러나 "이건 차별과 전혀 다른 문제다. 너의 이런 행동은 치졸한 복수에 불과하다. 그들은 믿음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면서 페이스북에 고발 글을 올린 사마나스를 비판하기도 했다.

(사)복음의전함, 오세아니아에서 내달 복음광고

(사)복음의전함(이사장 고정민)이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의 세 번째 지역인 오세아니아에서 다음 달 18일부터 광고 선교를 펼친다. 호주에서는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 등 주요 거리에서 4주 동안 대형 포스터 광고를 진행하고 뉴질랜드에선 오클랜드 시내 중심가의 버스정류장(사진)에 6주 동안 복음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광고는 방송인 최선규, 배우 진태현·박시은 부부, 가수 박지현 등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복음의전함 측은 "호주는 인구의 73%가 크리스천이고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여행자의 천국이지만 동성애와 무신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같은 풍요롭지만 속은 곱아가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뉴질랜드는 세계 13번째 동성결혼 합법 국가이며 성탄 광고에 친동성애 메시지가 포함되기도 한다"면서 "복음광고에 담긴 성경적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새겨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고 게재 기간 현지 교회와 협력한 거리전도도 진행된다. 호주에선 시드니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와 시드니성서화운동, 뉴질랜드에선 오클랜드한인교회협의회와 오클랜드한인청년사역자 모임 등을 중심으로 현지 성도들이 함께 거리전도를 펼칠 예정이다.

고정민 이사장은 "복음광고를 통해 기존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한인교회들 간의 연합을 이루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 망치면 성도 줄어든다는 두려움 떨쳐야"

설교는 예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다. 때론 목회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때문에 상당수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부담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그 부담감은 완성도 높은 설교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미국의 온라인 기독교 매체 '처치리더스'의 편집자인 브라이언 옴은 최근 '목회자가 경계해야 할 설교에 대한 통념'을 제시했다. 문화선교연구원(원장 백광훈)은 이 글을 번역해 소개했다.



옴은 먼저 '준비 시간이 길수록 더 좋은 설교가 나온다'는 생각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석을 연구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쓴 설교나 기록물을 읽으며 준비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더 영향력 있고 강력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설교는 목회자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타난다"라고 강조했다.

설교를 망치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념도 잘못됐다고 했다. 옴은 "한 번 설교에 실패했다고 교인들이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는

건 공포에 기초를 둔 잘못된 추측"이라고 지적하면서 "성도 수 감소는 보통 여러 요인이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통교리에 반하는 설교를 하면 예배 참여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목회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성도들이 안다면 설령 설교를 망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드백이 설교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생각도 경계해야 할 통념으로 꼽혔다. 옴은 "목회자들은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며 "정직한 피드백을 해주려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면 설교는 나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목회자는 배우자 외에 균형 잡히고 건설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할 만한 피드백을 해 줄 현명한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학술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야 깊이 있는 설교'라는 인식을 탈피하라고 제안했다. 옴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복음을 가르치셨다"며 "단순한 용어를 사용해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를 관통시키는 것이 깊이 있는 설교"라고 강조했다.

CNN, "北 ICBM 사정거리에 뉴욕까지 들어갈 수도"

북한이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정거리에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는 물론 뉴욕 같은 동부 도시들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N방송은 28일 한미일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약 45분간 날아 최고 고도 3700km, 비행거리 1000km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비영리 단체 '참여하는 과학자 모임(UCS)'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는 미사일이 보다 평평한 곳에서 정상 궤도로 발사됐다면 로스앤젤레스, 덴버, 시카고 등도 사정거리에 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이트는 이 미사일이 뉴욕시, 보스턴 등 미국 동부에 위치한 도시들까지 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미국 기독교방송네트워크(CBN)는 미 정부부 각료 10여명이 매주 백악관에 모여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고 31일 보도했다. 성경공부에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톰 프레이스 보건장관, 릭 페리 에너지장관, 벤카스 주택도시개발장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정부 주요인사가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도하는 트럼프...각료들은 백악관에서 성경공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각료들이 최근 백악관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하고 기도회를 통해 기독교계 인사들과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미국 기독교방송네트워크(CBN)는 미 정부부 각료 10여명이 매주 백악관에 모여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고 31일 보도했다. 성경공부에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톰 프레이스 보건장관, 릭 페리 에너지장관, 벤카스 주택도시개발장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정부 주요인사가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공부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성경공부를 이끌고 있는 '캐피톨 미니스트리' 설립자 랄프 드롤링거 목사로부터 교서 1부를 받아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한 시간이 될 때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캐피톨 미니스ตรี는 국회의원, 주의회의원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기독교적 가치를 정책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 비영리단체다. 드롤링거 목사는 "내 생애 최고의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각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학식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한편 NBC와 폭스 등 미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도회를 통해 30여명의 목회자들로부터 기도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니 무어 전 리버티대 부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 받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

리며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더니 영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채 목회자들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 기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도회 이후에도 100여명의 기독교계 인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지난달 마지막 주에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다.

미 유대 사회, 이스라엘과 갈라서나?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을 구현한 국가 이스라엘과 해외 거주 유대인(diaspora) 사이가 심상치 않다. 과거 이스라엘이 인



근국들과 분쟁에 휩싸일 때면 이스라엘 입국 공항은 더욱 붐볐다. 조국의 고난을 함께 하고자 해외에서 몰려드는 유대인들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결력이 근래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조국 이스라엘에 보내는 해외 유대인들의 자발적인 지지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최대 동맹인 미국 유대인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열어붙고 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은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우파 정부가 들어선 후 팔레스타인 점령정책과 정착촌 건설 등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시각이 냉담해지면서 이스라엘에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기가 힘들어졌다.

여기에 이스라엘 내 극단주의적 초(ultra) 정통 유대 랍비들이 다소 시대에 맞지 않은 종교적 전통과 관행을 고수하면서 보다 온건하고 실용적인 해외 유대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포린폴리시(FP)는 7월 28일 자에서 지난달(6월) 25일 이스라엘 정부가 취한 일련의 보수적인 종교 관련 조치로 그동안 잠재돼 온 이러한 국내외 유대 사회 간 문제들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 정통 랍비들이 주도하는 이스라엘 내각이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종교 인습을 고수함으로써 이제 미국 등 해외 유대 사회와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러한 갈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면서 "미국 유대인들이 과연 이스라엘을 포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스라엘 우파 정부는 지난달 25일 유대인들의 최대 순례 장소 가운데 하나인 예루살렘 서벽에 남녀 공동 기도소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1월 약 900만 달러를 들여 동쪽의 벽으로 불리는 서벽에 남녀공동 기도소를 설치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계속해서 초 정통 유대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이를 취소했다.

61석의 아슬아슬한 의회 내 다수를 유지하고 있는 네타냐후 내각으로서 연정을 구성 중인 초 정통 유대 계열 정당이 하나라도 이탈하면 내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정치적 생존을 위해 초 정통 세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유대인 자각에 대한 최종 심사 권한을 최고랍비 회의에 부여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누가 유대인인지 랍비 개인이 아닌 최고랍비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근래 급증하는 해외 유대인의 무분별한 본국 이주를 엄선하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유대인의 혈통을 보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스라엘 정부의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이러한 법적 조치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도 남성처럼 서벽에서 유대 복장을 착용한 채 유대경전(토라)을 읽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을 추진해온 단체들은 어렵게 마련한 공동기도소 설치 합의를 네타냐후 내각이 철화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총국 행동센터의 야나트 호프만 소장은 네타냐후 내각이 세계 유대인들의 성지인 서벽에 대한 열의를 소수 극단주의 그룹에 양도해 버렸다면 단정 정치적 생존을 위해 조국이 지난 가장 고귀한 가치를 팔아버렸다고 매도했다.

인간의 잔인함

인간은 매우 잔인하다.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 잡아먹는다. 가만히 보기에다 구약절이 날 정도로 징그러운 벌레와 구더기도 상관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슴의 혈관에 빨대를 꽂아 생피를 빨아먹기도 한다고 한다. 나아가서 인간에게 가장 커다란 해택을 주고 있는 자연 파괴를 주저하지 않는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듯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잔인성을 폭로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가정에 찾아온 불행을 기억하고 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생명을 그치게 하는 흉악한 행위는 언제나 인류의 역사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뉴스 기사 중에 많은 부분이 살인에 관계된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서인지, 아무리 잔인한 사건을 대해도 크게 놀라지 않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의 잔인성에 대하여 전 세계가 공감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바로 유대인 학살이다.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멸종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다.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를 통해 6백만 명이던 막대한 수가 학살당했다.

루터의 책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독일개신교협의회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였다.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과거 유대인의 학살이 독일인이었던 루터의 반유대적인 사상에 기초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한 신학자의 사상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으니, 500주년을 맞아 도리어 겸손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오랜 시간을 끌어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루터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견해는 나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히틀러가 자신의 악랄한 반유대주의를 실행함에 있어서 루터의 글을 근거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관심은 루터가 1543년에 저술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에 대하여"에 집중하여 있었다. 이 글은 루터의 반유대교 정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다. 히틀러가 구사한 방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한다.

첫째로, 루터는 유대인들의 회당과 학교를 불태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하며, 만일 태우지 못한 건물이 있다면 땅에 묻음으로 다시는 유대인의 가르침이 등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루터는 유대인들의 집을 불태워서 파괴할 것을 권장한다. 그들이 집에 거주하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보면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는 포로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루터의 주장과 히틀러의 비인간적인 행위와 상통함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히틀러가 철저한 루터의 신봉자였다는 말인가? 유대인에 관한 루터의 사상이 향후 독일인의 사상 깊이 자리하고 있었는 것인가? 다시 표현하자면, 루터는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저주하고 그들 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이상주

립 구도는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출발하여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어떤 감정적 대립이 있었을까?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사도들의 설교와 교부들의 글에서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반복되면서 반유대주의적인 신학적 전통이 세워지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초대교회의 대미를 장식했던 어거

곳에서 추방을 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 후로 계속 사회를 어렵게 하고 재앙을 불러오는 원흉이라는 손가락질을 힘없이 수용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우리는 중세 사회에 만연했던 반유대교 정서를 그들이 남긴 문화와 예술의 유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

루터에 대한 오해

1543년이었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 루터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실 후기 루터가 유대인에 대해서 매우 경경한 태도를 취한 것이 사실이다. 무슨 이유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까?

루터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매우 유한 태도를 취하면서, 개혁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세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분명하게 다른 태도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선민사상에 젖어 복음에 마음을 열지 않는 사실에 매우 분개하였다. 그들을 자제히 지켜본 결과 그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해되고 거론된 유대인에 대한 사상을 버리려 하였으나,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루터에 대한 이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루터의 반유대교 사상은 신학적인 이유였다.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히틀러처럼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멸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히틀러와 나치정권은 루터의 글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루터의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에 대하여"를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앞부분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서술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대속 공로가 없이도 행위를 통하여 칭의를 얻을 수 있다며 믿고 자신들의 거짓된 자랑을 늘어놓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였다. 나아가서 구약 성경이 이미 그리스도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항상 자신의 생각을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루터가 한 번도 유대인들을 직접 해롭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루터의 글은 신학적이었다. 마치 초대 교회 사도들과 교부들, 나아가서 중세 교회를 걸쳐가며 굳어져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서의 반유대사상을 이론적으로 펼친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 인종이나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로마서 9-11장에 나타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도록 복음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자.

covenantcho@yahoo.com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14)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루터의 "유대인과...", 히틀러의 비인간적인 행위와 상통함 보여 기독교 개종 가능성 없다고 판단, 어거스틴과 같이 중립적 입장

신분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 유대인의 기도서가 우상숭배, 거짓말, 저주, 신성모독을 가르치므로 이것과 탈무드를 그들의 손으로부터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로, 유대인에게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랍비들에게 가르칠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였

의자였다는 것인가?

반(反)유대사상

우리는 루터라는 한 인물을 상상할 필요가 없다. 만일 그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불편을 무릅쓰고 그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사상이

스틴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데, 구약성경의 정경을 부정하려는 이단들의 주장과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어거스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세 시대가 되어서 상황이 변화되었다. 특히 11세기에

루터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가 교회 역사의 흐름 가운데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대인에 대한 그의 생각도 예외가 아니다. 1523년, 루터는 유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논문을 작성하였다. 물론 루터의 관심은 유대인의 정체성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중세 시대가 지

루터의 반유대교 사상은 신학적 이유였다는 점에 주의해야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 반유대사상을 이론적으로 펼친 것

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결국 그들의 잘못된 사역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개종할 기회를 놓치게 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의 안전한 동행과 여행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서 그들의 경제 활동이 근원부터 불가능하도록 하도록 할 것을 권장하였다.

여섯 번째로,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현금을 몰수함으로써 어떤 부도 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곱 번째로, 유대인 젊은 남녀들이 땅을 흘러야 먹을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켜

왜곡되어 오해를 받는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루터가 말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루터가 반유대적 사상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그가 주도한 종교개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대 유대인들에게 루터는 물론 개신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루터 이전에 교회 역사를 통하여 드러난 반유대사상과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반유대사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통찰해 보자. 유대인들과 기독교 사이의 대

들어와 반유대주의가 태동하게 되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규모 고리대금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이 비성경적이라는 비판이 서서히 퍼지고 있던 중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농도들의 유대인 약탈이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다. 유대인들은 과거 그리스도를 죽일 때부터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라고 매도한 것이다.

그 후로 중세 교회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간주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1267년 교황이 유대인을 이단으로 공식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교회가 사회와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살인자라는 명목으로 각

년된 부정적인 견해를 그대로 따르는 것도 아니었다. 도리어 그는 어거스틴과 같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글을 기록할 당시 루터는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보다,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주를 이뤘다. 루터는 이 글을 통하여 로마가톨릭교회가 유대인들을 동물 취급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수모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약의 전통에서 이해하면서 그들을 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에 대하여"가 작성된 것은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2.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 유석경 저/구장
- 광야의 소리, 윤종하 성서유니온
-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 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 /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리더십 코멘터리 (46)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리더의 휴가는 한해의 작전타임

휴식 없는 리더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같이 위험하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던 리더에게 휴가는 하늘이 내려주는 귀중한 은혜의 선물이다. 휴식 없는 리더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같이 위험하다. 리더가 삶의

사람이 잘 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탐욕이다. 스스로 만족을 모르는 소유의 욕구가 탐욕이다. 원한다고 다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자 말 것처럼 욕심을 부린다. 또한, 가지고

통해 내 주변에 나와 소통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휴가가 끝난 후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보람이 넘치는 생명력을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리더의 휴가는 단순히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유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리더의 휴가는 단순한 피서가 아니라 마음의 치유 시간이고,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시간으로 이웃과 자연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휴가가 되어야 한다.

가던 길을 멈추고 삶에 눈 떴네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으면 행복도 뒤따라 올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지위와 권세와 물질을 추구하며 산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행복감이 거기에 없을 때 커다란 실망을 안고 좌절해 버린다. 또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먼 미래에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도 잘못된 생각이다. “자녀들을 대학, 대학원까지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를 보내면 행복이

나무를 베어 생계를 꾸려가는 나무꾼은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많이 베어야 수익이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도 쉬지 않고 톱질을 한다. 그런데 만일 이 나무꾼이 잠시 일을 멈추고 그 사이에 톱날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의 시선과 염려와는 달리 나무꾼은 톱날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의 더 많은 결실을 얻기 원한다면 지금 잠시 멈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쉬는 휴식도 필요하다.

사막을 건너면서 쉬어야 할 이유

세상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길을 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 멈추어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평소 에 멈추어 서서 한가롭게 살을 되돌아볼 만큼 여유를 지닌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갑자기 병이 찾아왔거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

힘써 일하고 온전히 쉬어라... 많이 쉬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어 탐욕, 시기&질투, 분노, 교만으로 평안 못 누리 창조적 심표가 되는 휴가... 톱날 갈 시간 필요

터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힘써 일하고 온전히 쉬는 것이다. 또한 지혜로운 리더는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의 노예가 되지 말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리더여, 휴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라. 휴가는 단순히 바캉스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뜻을 지닌 휴식이다. 바캉스란 말은 프랑스어로 '비운다'라는 뜻에서 유래한다. 여름철이 되면 파리의 시민들이 거의 모두가 며칠씩 혹은 한 달씩 집을 비우고 휴가 여행을 떠나서 파리 시내가 텅 비어짐으로 인해서 생겨난 말이다. 지금 휴가를 떠나려는가? 바캉스를 통해 머리 속의 불필요한 정크(junk)를 비우고 뇌를 가볍게 만들라. 휴식은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의 휴식이 필요하다. 또한 영혼의 상처와 피로한 심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바쁘게 달려가던 삶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보다 슬기롭고, 건강해지며, 새로워져서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여름철이 되기를 바란다.

휴가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리더는 참 쉬을 얻기 위해 탐욕을 버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둘째는 시기와 질투이다. 시기와 질투는 항상 나를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온다. 남과 비교해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더 잘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배가 아프고 혈통고 깎아 내리야 시원하다.

셋째는 분노이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혈기를 부리고 나면 며칠씩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나의 혈기로 상처받았을 상대방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고, 성숙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잠 못 이룬다.

넷째는, 교만 때문이다. 교만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웃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는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데 스스로를 지위가 높은 체, 큰 재산을 가진 체, 많은 것을 아는 체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다보니 마음의 갈등과 공허는 점점 더 커진다.

리더의 휴가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휴가는

다가오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그때가 되면 허무와 공허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 "좀 더 많은 재산을 경두 보면 두 종류의 멈춰 서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쉬기 위해 멈추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쉬지 않고 달리다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멈춰서는 경우이다. 쉬기 위해 멈추면 휴식과 충전과 여유를 얻게 되지만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면 뒤늦은 후회와 회한만이 되돌아온다.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면서 오아시스에 멈추어 쉬어야 할 이유가 세 가지 있다.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을 점검한다. 셋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멈추어 쉬고 활력을 되찾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사막에서는 더 많이 쉬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이다. 오아시스는 쉬는 곳이다. 몸이 쉬고 생각이 쉬고 마음이 쉬는 곳이다.

(11면으로 계속)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은혜

칠월 초에 필리핀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탁받은 세미나 때문에 그저 가볍게 놀러가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쁜 일상을 벗어난 심이 주 목적인 여행이었다. 한국 가는 길에 필리핀에 들리기로 결정했던 것은 2년 만에 오빠 가족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제 오빠도 팔순을 향해 나이가 들어가니까 가능한대로 자주 얼굴을 봐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 오빠가 마음에 걸려서였다. 사실 오빠에게 들리기로 한 이후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말에 식상한 오빠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말이 아닌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야 하는 것인지 생각이 많았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 열흘 동안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조카가족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출장했다가 들린 대학 후배, 또 컨퍼런스 참석차 왔다가 하루 묵었다는 대학 후배부부도 계속 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여름 방학이지만 학교에서는 집중강의가 진행 중이어서 강의 하러 오시는 교수님, 학생들의 필요도 살펴야 했기 때문에 손님들 접대와 학교 일이 겹쳐서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 피곤하고 힘들면 나타나는 등, 허리의 통증 때문에 서 있어도 힘들고 앉아 있어도 힘들데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은근히 염려가 되었다.

주일 예배 후 마지막 손님인 후배부부가 떠났다.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여행 갈 짐을 싸고 오래 동안 집을 비울 준비로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는 공항으로 향했다. 열세시간 넘는 비행시간을 이미 파김치가 되어버린 몸이 잘 견뎌줄 수 있을지, 비행기 안에서 몸살을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 등이 아플 때 테니스공을 아픈 곳 위에 대면 조금 도움이 되어서 비행기 안에 갖고 들어갈 가방에 테니스공을 챙겼다.

두 시간 가까이 연발이 된 비행기 탑승시간이 되어 직원에게 탑승권을 건네주었더니 데스크로 가라고 한다. 웬일인지 모른 채 데스크로 갔더니 자리를 바꾸었다며 새 티켓을 건네주었다. 좌석번호를 보니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닌가! 아마 비즈니스 클래스에 빈자리가 있었나보다. 몇년전에 컨설팅 일을 하느라 비행기를 자주 탈 일이 있어서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었지만 작년에 골드회원으로 강등(?) 된지라 비즈니스 클래스 자리를 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더 서프라이즈 선물이었다. 비즈니스 자리 티켓을 받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 걸어가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세 번이나 연거푸 나왔다. 열세시간 넘는 비행시간을 그리잖아도 아픈 등으로 어떻게 갈까 염려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던 좋은 자리로 옮겨주시는 자상하신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서 눈가가 촉촉해졌다.

물론 비즈니스 클래스는 일반석보다 서비스가 더 좋지만 내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비즈니스 좌석은 완전히 누운 채로 잘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픈 등과 허리를 구부린 채 오랜 시간 비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감사했다. 직원이 낮은 자세로 앉아서 인사를 할 때도, 필요한 것이 없는지 자주 와서 물어볼 때도 내 마음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써주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덤으로 이 자리에 앉아가는 것이거든요"라는 생각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겠지만 나는 아무런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가 받는 혜택이 더 고맙게 느껴졌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열세시간,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했다.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누워갈 수 있다는 것으로도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운데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기쁨,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 온 것이 온전한 은혜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은혜임을 더 늦기 전에 오빠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lpyun@apu.edu

2017년 가을학기

B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 (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 admissions@buc.edu

TEL: 1-714-517-1945 / FAX: 1-714-683-1440 ▶ www.buc.edu

모집학과

- 신학**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 음악**
 - 학부(B.A.) / 대학원(M.A.)
 - 건반악/관현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 영화음악
- 경영학**
 - 학부(B.A.) / 대학원(M.B.A.)
 -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 유아교육**
 - 학부(B.A.) / 자격증 프로그램
 -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ESL**
 - ESL I-20 / Certificate
 -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를 위한 어학연수 과정
- 온라인**
 - 학부(B.A.) / 대학원(M.A./M.Div.)
 -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스포츠팀**
 -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혜택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모르스 솔라(Mors Sola)

귀에 익숙하지 않은 말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의미가 때때로 우리를 숙연하게 만든다. 오늘의 제목인 '모르스 솔라'도 그 중의 하나다. 이 단어를 주제로 삼고 있는 나...

오늘 처음 접한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두 단어를 굳이 제목으로 삼은 것은 제대로 알기 위함이다. 오늘 알았다가 내일 잊어버려도 좋은 그렇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인의 귀감일 되어야 하는 내용이며 인간의 조건에 빠져서는 안 될 필수이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지낼 수 있기를 간청했다. 왕이 거절하자 바사의 부인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반지에 새겨진 글을 왕에게 보여줬다. 그 반지에는 'Mors Sola'라는 글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글의 의미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였다. 공작부인은 그렇게 하여 감옥에 남편과 함께 갇혀 17년을 지내다 에릭 왕이 죽은 뒤에 석방이 되었다고 한다.

인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보다 더 깊다. 이 땅의 어떤 상황이든 환경을 초월하여 함께 한다는 강한 의지인 다짐인 까닭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보자. 배반과 배신이 곧 인간의 조건이라도 되는 듯 정치에도, 종교에도, 심지어는 가정에도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져 있다. 정치의 현실은 신물이 날 정도다. 힘과 권력 앞에서는 자신의 쓸개라도 다 빼줄 듯 눈치를 보던 자들이 상황이 바뀌니 억울하다며 발뺌을 하기에 바쁘다. 죄를 지은 뒤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던 모양이 재현되고 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아담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있는 예가 어디 한둘이랴만 미래 과학부장관 후보자가 아마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모양이다.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의원들이 그의 이력을 들춰 추궁했다.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진화론을 어떻게 검증할 수 없는 창조론으로 비판했느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얼버무리려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신앙보다 장관이 더 좋아서 진화론의 편을 들었다. 베드로와 유다의 배반과 다르다고 핑계할 수 있으랴 싶다. 백세시대의 황혼이혼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 혼인신고보다 이혼신고가 더 많다고 한다. 그러나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해로하라는 주례사는 고리타분하고 보보넬게 효도하라는 덕담은 듣기조차 싫어 주례가 없는 결혼이 선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모호한 시대에 모르스 솔라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그 파문이 실로 염려가 된다. 나와 같이 그 말 자체가 좋아 칼럼의 주제로 삼을 만큼 감동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있을 까 싶기도 하고 무겁고 두루뭉술

한 돌덩이 하나가 물속에 잠겨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속수무책에 맞을 수도 있는 까닭이다. 이전에는 십 년이면 강산은 변해도 인심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강산은 무변하나 인심은 한 점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어 남이 되면 그것은 곧 원수가 되었다는 의미처럼 날카롭다. 모르스 솔라는 발마져 붙일 곳이 없는 세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세상일지라도 믿고 끈 구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인간의 본성에 남겨두셨기에 완전히 약해지지 않는 것이다. 영화를 보다 선이 악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면 아낌없이 박수를 치던 그런 순수함이 아주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천국에서 자진하여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 종신형을 살고 있는 남편 앞에서 17년을 견디며 모르스 솔라를 날마다 되뇌었을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hanmac@cmi153.org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 삶에 끼친 영향은...

베델한인교회 제2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제2차 시원한 신학강좌를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했다.

김한요 목사는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삶에 영향을 주었으며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각 전공별로 은혜의 깊이가 더한 시간이 될 것"이라 신학강좌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첫날 저녁 신학강좌는 박응규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종교개혁의 기원과 배경'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응규 교수는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교리의 개혁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적 영향력도 수반된 엄청난 사건이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참된 도를 말씀에서 찾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초대교회 이후 중세교회가 성경적 진리에서 이탈한 것을 회복시킨 본질의 회복을 마틴 루터,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종교개혁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배우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도를 붙들고 사는 자들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당시 로마카톨릭의 구원론은 오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성직자들을 통한 성례전을 통해 온다고 변질시켰다. 교회사로 연결된 면죄부가 중세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루터는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제2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에서 박응규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을 근거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며 구원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제사장과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모두가 제사장임을 외치고 파급시켜야 한다는 책임을 일깨워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개혁 전야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 대형교회의 세습이 면죄부 판매에 얽힌 이권과 유사하다"며 "교회가 내 교회라 생각하고 대형교회의 이익을 소유하고 자신과 연관된 자들과 나누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전면으로 맞서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루터와 칼빈이 이룬 개신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됨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의 도를 사는 것이 루터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오태균 교수(충신대학교)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녀교육'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될까를 고민해야 한다. 크리스천들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하

나님의 선물(기쁨), 부모에게 맡겨진 기쁨,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께 속해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들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것이 양육에 대한 원리"라 설명했다.

둘째 날 오전 집회는 온세상 교수(M신학교 교수, Z국 선교사)가 '종말론과 이신칭의: 성부' 박응규 교수가 '종교개혁의 영향과 의미', 저녁 집회는 온세상 교수가 '종말론과 이신칭의: 성자', 정승원 교수(충신대학교)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셋째 날 집회는 주일1부 박응규 교수가 '믿음의 결실', 2부 오태균 교수가 '실패하는 주는 교훈', 3부 정승원 교수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4부 온세상 교수가 '종말론과 이신칭의: 성령', 그리고 오후 집회는 오태균 교수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녀양육2'를 각각 강의했으며 4명의 강사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김한요 목사 사회로 패널토의를 했다.

(박준호 기자)

살롱장로교회 설립40주년 앞서 남녀전도회 헌신예배



살롱장로교회 남녀 전도회 헌신예배에서 오는 8월 27일 임직하는 임직자 일동이 찬양하고 있다.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설립 40주년 기념 준비로 지난 23일 남녀 전도회 헌신예배가 열렸다.

예배는 정승현 회장 사회로 본교회 제 3대 담임목사였던 이희운 목사를 강사로 초청했으며 이 목사는 창세기 35장 1-5절을 본문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 처해있는 아픔을 부르시듯이 우리는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자"고 말씀을 전했다.

이 헌신예배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교우들이 함께 만찬을 나누며 친교를 나눴으며 설립 40주년을 기점으로 새 출발함으로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됐다.

(기사제공: 살롱장로교회)

본사방문

"55년 된 곱사등을 퍼주신 주님을 찬양"

백기현 교수(공주대 음악교육과)

55년 된 곱사등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된 백기현 교수(공주해월암리교회 장로)가 지난 7월 7일부터 31일까지 미주지역 순회 집회를 마치고 한 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사를 방문했다. 지난

30일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마지막으로 집회를 인도한 백기현 교수는 "미주 집회를 통해 많은 저 자신도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며 짧막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본사를 방문한 백기현 교수가 찬양 시도와 함께 간증을 들려주며 자신을 소개 했다.

백기현 교수는 두 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곱사등이가 돼 55살이 되기까지 열등감으로 살아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서울음대 성악과에 합격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바로 하반신마비가 돼 병원에 실려 갔고 휠체어를 의존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27세가 되던 해 성악교수의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

그러나 '곱사등이 성악가'라는 부끄러움을 지울 수 없었고, 공연무대를 피할 수 있는 일을 찾아 1991년 오페라단을 만들었다. 오페라 단장으로 음악감독이 됐고 그가 만든 '오페라 이순신'은 그의 인생을 거는 공연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2003년 '오페라 이순신'은 러시아 공연에서 산더미 같은 빗을 떠안게 됐고 빗에 쫓돌린 그는 2004년 12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치유를 받은 것은 2005년 2월 4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내를 따라 구경꾼으로 참석한 부흥회에서 주님의 치유를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양손을 위로 번쩍 들게 하시고, 동시에 양 무릎을 받굽 꺾으시고, 몸통을 뒤로 제키시고, 목과 양손을

비틀고, 호흡을 부풀려서 배를 누르시면서 양팔을 뒤쪽으로 쫓히며 계속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끌어내리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놀라서, '이게 뭐야,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과 시원함이 가슴과 등 한복판에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고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까, 창피한 마음에 몸을 세운 후 머리를 흔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귀에 '내가 너의 등을 핀다'는 음성을 똑똑하게 들려주시며 계속하여 제 몸을 치유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나를 앞으로 불러내시어 간증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새벽 1시에 하나

님을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등을 다시 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 5일 동안 저를 방바닥에 누워 놓고 계속하여 굽은 등을 치유하신 후, 마지막 날 새벽 6시에 '일어나 보아라, 내가 너의 등을 다 폈다 이제부터 나를 찬양하거라, 그리고 나를 널리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날을 회상하며 들려주었다.

이후 그는 주님이 세우시는 곳마다 간증집회를 다니며 찬양 CD도 5집까지 만들어 배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내년 2월에는 동부지역 간증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백기현 교수에 관한 문의는 khbaik3@hanmail.net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East Asia \$190, Europe \$190, N. America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fields including name, address, phone, and payment information.

E-mail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동부교계 기사판



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 19차 정기총회

한인기독교총연합회(The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www.kicca.org, 대표회장 전영현 목사) 제 19차 정기총회가 8월 29일(화) 오후 3시부터 30일(수) 오후 2시까지 컨츠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참석 대의원은 각 교단장, 경증회장단, 각 교회회장, 경증회장, 공인된 선교단체장이며 등록비는 일인당 100달러. 참석여부(8월 10일까지)와 항공스케줄은 사무총장 이대우 목사(leadawoo19126@gmail.com)에게 하면 된다. 공항 라이드와 호텔 예약이 가능하다.

▲문의: (267)577-0392, (917)332-7332 준비위원장 황경일 목사



뉴욕서광교회 설립 24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마치고 여성교회가 찬양하고 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뉴욕서광교회 설립 24주년 기념 감사예배

뉴욕서광교회(담임 최병영 목사)가 설립 24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기념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렘29:10-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단에 오른 최병영 목사는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병은 절망, 낙심이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어있다”며 “지옥은 절망이 영원화 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인 예레미야 29:11-14절 말씀이라고 소개한 최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담과 낙담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보내시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24주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낙담과 낙심에도 빠지지 말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꽃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최 목사는 또 “광야에서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자란 싹된 나무를 조각조각 잘라 법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이런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을 믿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내어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또 “하나님은 70년 동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해 들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 최 목사는 “고난이 찾아오면 버릴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고 전하며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기쁨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목사는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고 전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소개했다. 특별히 이날 예배 중에는 성례식과 성찬식을 가졌으며, 예배 후에는 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아 남, 녀 선교회와 청년부, 중고등부, 유년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 기도회 고백 등 특별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서광교회)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뉴욕교협 후원 “하나님의 인을...” 세미나, 강사 라흥채 목사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이 후원한 라흥채 목사의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세미나가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뉴욕교협 건물에서 열렸다.

총무 임병남 목사의 기도 후 시작된 세미나에서 라흥채 목사는 오전에는 구약과 신약, 사도행전에 대한 재조명으로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성경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강의했다. 오찬 후 오후에는 자신의 최근 저

서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책소개 16면]와 관련해 심각하게 돌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참 교회를 세우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에 대해 강의했다.

라흥채 목사(뉴욕제자교회 담임)는 이 시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시겠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성경”이라고 말하고 “인

생의 내비게이션 성경은 우리를 마지막 목적지까지 인도하는데 그 주소가 천국, 성령,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나”라며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 목사는 “구약은 창세기 2, 3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가르치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가르쳤다. 신약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 마음속에 새겨 이뤄진다. 즉 우리가 예전에 돌아가는 삶, 내가 성전이 되는 삶이며 천국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다니엘서 9장의 70이레에 이르러 구원역사가 끝나는데, 사도행전은 69이레와 70이레 사이에 이방인들에 주신 시간으로 이 시간(행 29장)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시기는 선교하는 시기”라며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현대 교회가 말살되고 있으며 이는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이다. 온라인교회, 차별금지법, 동성애, 애국법, 주일을 가정의 날로 하는 등의 움직임이 심각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 목사는 “그러므로 이 시대 사역자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에게는 라흥채 목사의 저서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가 무료 배부됐다.

(유원정 기자)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지난 26일 월례예배 및 단기선교 파송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 51차 월례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야외기도회, 날씨관계로 평화교회서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제 51차 월례기도회가 지난 29일 오전 10시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김연창 장로 사회로 반주 손옥아 권사, 기도 박용기 장로, 설교 허윤준 목사, 특별기도. 헌금 특송 장로연합회총장단, 헌금기도 남후남 장로, 회장인사 및 광고 손성대 장로, 축도 허윤준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허윤준 목사는 시편 116편 1-14절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특별 기도시간에는 정권식 장로가 “다민족선교대회와 장로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덕상 장로가 “7월 30일 성전지전 감사예배를 앞둔 평화교회를 축복하소서”, 김영

호 장로가 “연로하신 장로님들의 건강과 우화신 장로님의 쾌유를 위하여”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이어 이보춘 장로의 식기도 후 푸짐한 오찬을 나눴다. 이번 월례회는 원래 풍아일랜드 벨트트레이크 스테이트 파크에서 야외회로 가질 예정이었으나 날씨 관계로 갑자기 평화교회에서 드리게 돼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

한편 다민족선교대회(9월 10일, 오후 5시)를 앞두고 8월에는 3일(목) 오전 8시 플라시 금강산 식당에서 준비모임을 가졌다.

8월 기도회는 17일(목) 오전 8시 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순 목사)에서 다민족선교대회 준비기도회로 모이게 된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엘살바도르...선교팀 4명에 파송기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단기선교 파송식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26일 7월 정기예배 및 단기선교 파송식을 가졌다.

이번 단기선교는 8월 7일 새벽에 출발해 3박4일 일정으로, 파송지는 엘살바도르의 제 2대 회장이었던 황영진 목사가 지난 3년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곳이다.

파송팀은 유상열 목사, 김민한 장로, 박진하 목사, 전희수 목사 등 4명.

1부 예배는 전희수 목사 인도로 기도 권규주 목사, 설교 박태규 목사, 파송기도 이종명 목사, 축도 유상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태규 목사는 “심고 거두기를 잡하라”(갈6:1-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흔히 ‘단기선교’라고 하는데, 선교는 단장기가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위해 선교헌지에 심은 땅과 수고와 사랑과 물질이 열매 맺기를 소원한다. 선교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씨를 심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선교사의 실패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 한다는

나 잘못 뿌린 경우”라며 “시간이 갈수록 썩어질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 생명의 열매가 많은 수확을 하는 기아대책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유상열 목사의 개회 기도 후 전희수 사무총장이 엘살바도르 단기선교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번 8월에는 단기선교 외에 지원 선교로 과테말라(장경순 선교사)에 화장실 및 부뚜막 개선 사업을 한다.

과테말라는 올해부터 아동후원센터(CDP) 사역을 시작했으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8년 단기선교지도 잠정 결정된 곳이다. 또 신규 아동결연 5명이 증가됨을 보고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새로 제작된 홈페이지(www.breadngospel.org)에서 각 개인별(교회별) 후원아동을 확인할 수 있다.

회의는 박진하 목사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8월 월례예배는 23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45 화요성경강좌: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화,토)</p> <p>Tel: (516)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계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917)733-7387 45-162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kla@yahoo.com</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강좌: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영양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강좌: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계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성경강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p> <p>http://www.pccofny.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순복음안다독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강좌: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문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mitch.com</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양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강좌: 오전 10: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p> <p>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cchurch.com/</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수, 목)</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찬양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강좌: 오후 12:30 금요성경강좌: 오후 1:30 수요 영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6:00 금요성경강좌: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성경강좌: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p>	<h4>퀸즈로만교회</h4> <p>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성경강좌: 오후 1:30 NCF예배: 오후 7:00</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좋은씨앗 _ 리더미 프레이즈 미서부 워십투어가 열렸다. 사진은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린 집회 모습



LA정신건강국이 주최한 종교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분노조절법이라는 주제로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서부교계 게시판

선한목자장로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
선한목자장로교회 문일명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8월 6일(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날 설교는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은퇴)가 맡는다.
▲문의: (626)965-3443

한인연합감리교회 감독배 소프트볼대회
한인연합감리교회 감독배 소프트볼대회가 8월 5일(토) 클락 리저널 파크(Clark Regional Park, 8800 Rosecrans Ave, Buena Park, CA)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린다.
▲문의: (310)347-8817

선한목자크리스천프리스쿨 오픈하우스
선한목자크리스천프리스쿨(2600 Grand Ave, Chino Hills) 오픈하우스가 8월 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문의: (909)591-6500

인랜드교회 설립33주년 기념 성찬예배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는 교회설립 33주년 기념 성찬예배를 8월 6일(주) 예배시간에 갖는다.
▲문의: (909)622-2324

충현선교교회 설립32주년 기념부흥회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교회설립 32주년 기념부흥회를 '말씀으로 배우는 거룩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8월 10일(목)부터 13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권연경 목사(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기독교연구원 노혜미야연구위원)이며 일정은 10일(목) 저녁 7시30분, 11일(토) 새벽 5시20분, 저녁 7시30분, 12일(토) 새벽 5시20분, 저녁 7시, 13일(주) 1, 2, 3부 예배.
▲문의: (818)549-9191

목회청사진 훈련세미나
남침례회 북미주 선교부는 개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교육으로 목회청사진 훈련 세미나를 소중한교회(담임 김기동 목사)에서 개최한다. 일정은 8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강사는 김승식 목사, 신기환 목사다. 등록비는 160달러이며 참석자에게는 300달러 상당의 지역조사를 해준다.
▲문의: (714)606-1100

인터넷창업세미나
UGN 복음방송은 8월 8일(화) 오후 6시 '4차 산업혁명시대, 자본 없이 글로벌 인터넷 1인 창업 및 연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장소는 2975 Wilshire Blvd #415, LA, CA.
▲문의: (213)700-2891

미주장신대 학생모집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2017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
▲문의: (562)926-1023

리더들이 신경질을 잘 내고 상처를 잘 받는 이유는 번 아웃(burn out) 되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더의 휴가는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앞만 보고 쉽게 달려왔던 삶이었다면 이제 한번 잠시 멈춰서 자신을 점검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기를 바란다. 쉽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휴식이 주는 편안함을 위한 숨이 있는가 하면, 다시 일하기 위한 숨도 있다. 당신의 숨은 어떠한가? 이제 다시 새 힘을 내어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일과 쉽이 이루어야 아름다운 화음이 이를 읽는 리더의 삶 속에서 울려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좋은씨앗 & 리더미 프레이즈 2017 미서부 라이브 워십투어

"좋은씨앗 & 리더미 프레이즈" 2017 미서부 라이브 워십투어가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26일(토) 7시30분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이유정 목사(좋은씨앗)는 "저 자신이 모태신앙으로 자라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 결국 신경쇠약과 대인공포증에 걸렸으며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였다. 하지만 군입대후 찾아간 군대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예수님의 만남이 나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단 한번에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는 그리스도와', '주안에 있는 나에게' '담쟁이' '주품에' 등을 불렀다. 한편 이번 워십투어는 19일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23일 예전교회(담임 김민재 목사), 29일 뉴홀한인교회(담임 송인철 목사), 30일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박준호 기자)



엘피스 사역원 주최 건강한 가정과 자녀세우기 세미나에서 박운송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정서적 조율 필요...가트맨 박사 이론 소개 엘피스사역원 주최 건강한 가정과 자녀 세우기 세미나

엘피스 사역원(원장 박운송 목사)이 주최한 '건강한 가정과 자녀 세우기' 세미나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에서 박운송 목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됐다. '건강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열린 오전 강의에서 박운송 목사는 "결혼이란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채워주는 것이며 인생의 여정에서 성숙해지는 길목이다. 포기 배려 등 많은 구조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우리의 문화, 습관, 가치관, 세계관 등이 부모와 함께 형성됐다. 배우자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다. 따라서 정서적 조율이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트맨 박사의 이론을 인용

하며 건강한 부부가 되는 7단계 방법으로 △첫째, 애정지도를 그린다. 애정지도가 더 단단하게 이루어질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둘째, 친밀함과 다정함 △셋째, 상대방에게 달아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기 △넷째,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다섯째, 갈등관리(부부싸움도 지혜롭게 하기) △여섯째, 서로의 꿈을 실현해주는 것(먹고 싶은 거 사주는 등 작은 꿈도) △일곱째, 함께 공유할 인생의 의미 발견하기(비전을 나누는 것)로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박운송 목사가 '건강한 자녀 세우기'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본 사역원 총무인 최숙희 사모가 코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효과적 해소 필요...자기감정 이해해야 LA정신건강국 세미나, '분노조절법' 주제

LA정신건강국 세미나가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에 LA정신건강국 코디네이터인 이주호 선생과 안정영 선생이 참가하여 강의했다. 안정영 선생은 "분노는 하나의 감정이며 모든 감정은 내부에서 경험하는 단계와 외부로 표출하는 단계로 이어진다"며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화를 내면서도 미안함, 수치감, 좌절감, 모욕, 절망감, 우울함, 두려움 등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지만 내부에서 경험되는 분노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다. 반면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게 되면 가정, 사회, 직장에서의 관계 및 생활에 해를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선생은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분노를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고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선생은 분노조절을 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선생은 "우선 사건을 겪은 후 사건에 대해서 맨 처음 드는 1차적 감정, 사건을 경험한 후 여러 생각을 통해 드는 나 자신에 대한 감정과 그 감정에 대한 감정인 2차적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일부러 일으킨 3차적 감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분노조절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이 있음을 설명했다. "화나는 일에 대한 생각이 벗어날 수 없을 때 타임아웃과 기분전환으로 조금 안정을 취한 뒤 스이 이슈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스이 이슈가 이렇게 화를 낼만큼 정말 가치가 있는가? 스이 이슈가 내 하루를 망칠만한 가치가 있는가? 스이 이슈가 이 인간관계를 망칠만한 가치가 있는가? 스이 상황에서의 내 반응이 적절한가? 스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등을 물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의를 마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이 강의시간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리더십 코멘터리

(8면에서 계속)
때때로 고난과 역경의 모래폭풍이 불어 닥치는 인생의 사막 길에서도 오아시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득도 같 길이지만, 저 뜨거운 사막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서는 폭염에 지친 몸을 씻어야 한다. 희망의 구름을 다시 오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아시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명한 리더가 되려면 틈이 휴식의 시간을 만들어 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서는 위기의 순간을 막을 수 있다.
리더여, 인생의 아름다운 화음을 울려라
쉽 없이 달려가지만 하고 기쁨을

채우지 않으면 자동차는 서버리고 만다. 종종 정지해서 정비를 받고 재급유를 받아야 장거리를 고장 없이 달려갈 수 있다. 가솔린(gasoline)이 바닥이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가던 길에서 멈춰서 버릴 수밖에 없다. 이는 저수지와 비슷하다. 저수지의 역할은 필요할 때 물을 내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저수지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채운 다음에 물을 내보내야 한다. 자신을 채우지 않고 계속 내보내기만 하면 결국 고갈되어 바닥이 드러나고 만다. 이는 리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채우지 않고 계속 방출하기만 하는 리더는 쉬고 갈수록 탈진해버리고 만다. 우리 주변에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원: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10: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성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1,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01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평일: 오전 6:30 EM, 대학원: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p>남가주주님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침례인예배: 오후 1:2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성리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여져 있는 우리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토요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황 태스 경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미주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침례부)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www.mj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l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Rd.,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5:30 새벽기도: 새벽 5:30 수요영양기도회: 오후 7:30 Tel: (213)245-4099,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영양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p>	<p>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주일 5부예배: 오후 6: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양예배: 오후 7:30(월-토) www.graceml.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Ct.,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우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침)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침례: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Tel: (310)749-4500, Fax: (310)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org</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sm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mpervy Hwy., Yorba Linda CA 9286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ch.com / e-mail: pastor@aco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영)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침)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침) 침례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anceccc.org Tel: (310)53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9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한국교회 통합 추진안’ 전격 통과

한교연 임시총회, 통합권한 통추위·대표회장에 위임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에서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잇따라 열고 ‘한국교회 통합 추진’ 안건을 전격 통과시켰다.

한교연은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의 통합 관련 권한을 통합추진위원회 및 대표회장에 위임키로 했다. 총

회를 대신해 임원회의 결의로 통합을 최종 결정, 시행키로 했다.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과 교단장회의의 대표인 이성희 예장통합 총회장은 지난 12일 ‘한교연-교단장회의(한국교회총연합회) 통합안’에 서명했다. 주 내용은 ‘가칭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연) 명칭을 사용한다’ ‘한기총은 정상화되면 통합을 추진한다’ 등이다. 하지만 일정 규

모를 기준으로 한 군소교단의 참여 범위 등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직원 승계 및 정관·이사 변경 등의 사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교연측 통합추진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양측의) 통합안 서명은 그야말로 한국교회 통합을 위한 첫 단추를 푼 것”이라며 “앞으로 양측 통합추진위원 6명이 차근차근 풀어나갈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기연 창립 행사는 8월 1일에 예정돼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전 입후보 시작

장희열 엄기호, 엄신형, 서대천, 김풍일…5명 윤곽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31일 대표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간다.

이번 선거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소속 장희열(인천 순복음부평교회) 엄기호(광주 성령교회) 목사, 한기총 14-15대 대표회장을 지낸 엄신형(서울 중흥교회) 목사, 서대천(서울 흘리씨즈교회) 목사, 이영훈 전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자칭 ‘보혜사’ 김풍일씨 등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목사는 30일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서 목사는 조만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임원회의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서 목사가 소속된 예장합동은 한기총

에서 행정보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선교회 대표자격으로 출마한다.

후보자는 다음 달 4일까지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교단 추천서, 이력서, 소견서, 발전기금 5000만원 납입증명서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위에서 정식 후보로 인정받으면 공개청문회에 참석하며 선거용 홍보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선거는 8월 24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에서 1인당 5분간의 후보자 소견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320여명의 총대 중 과반수 표를 얻어야 대표회장에 당선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득표자 2인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한다. 여기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최종 당선된다. 대표회장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곽중훈 한기총 직무대행은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권선거가 발견되면 해당 인사는 영구적으로 대의원권이 박탈되며 해당 후보도 5년간 회원자격이 상실된다”면서 “허가받지 않은 문자메시지 발송을 금지하고 선거 관련 통화가 있었다면 선관위에 사후 통보토록 하는 등 불법 및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놓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를 이끌고 있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29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실무대표와 회의를 갖고 정관 변경 등이 완료된 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연)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기연 출범예배는 당초 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2주가량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목사 안수 옳은가…불꽃 논쟁

네덜란드개혁신교회 안수 결정 국내 신약학교수 인터넷 논쟁

최근 네덜란드 개혁신교회(해방파)가 여성목사 안수를 전격 결정하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고신대 송영목(신약학) 교수가 “여성 안수와 관련해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예상고신 측 인터넷언론 코람테오닷컴에서 주장하자 역시 신약학 전공인 백석대 최감중 총장이 “여성 안수를 반대할 성경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고신대가 소속된 예장교신은 여성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백석대가 소속된 예장대신은 허용하고 있다.

송 교수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을 설명한 고린도전서 11장 2-16절에 대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 성부가 성자의 머리이신 것처럼, 존재적으로 남녀는 동등하지만 역할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바울이 9절에서 타락 이전의 창조 질서를 언급한 것은 문화에 제약되지 않는 규범을 제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총장은 “이 구절이 공에 배에서 남녀의 역할에 차이가 있거나 교회 안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상위 계급에 속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대 헬라 로마 유대 사회에서 정숙한 여자들이 갖춰야 하는 헤어스타일을 포기하고 교회 여성들이 예배의 정숙성과 질서를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로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4장 34, 35 절은 여성 목회자 안수를 반대하는 결정적 구절로 제시된다. 송 교수는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도출된 계시임을 가리킨다”며 “33절의 ‘교회’는 복수 명사이기에 바울의 논의는 특수한 교회의 관습이 아니라 교회의 일반적 관습에 근거한다. 이 구절이 여자의 공적 사역이나 안수를 위한 근거 구절이라고 보기 어렵

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만약 이 구절이 모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사도바울이 여자들도 예배시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구절(고전11:5)과 정면 대립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사역한 여성 지도자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며 “바울이 본문과 같이 말하는 이유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으킨 분쟁과 예배시의 무질서를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구절이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12-15절 역시 논쟁 구절이다. 여성의 가르침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송 교수는 “12절은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하기에 여성이 배워도 가르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을 여성 일반 전체로 보기는 어려우며 가정을 가진 기혼여성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했다.

대해 추가 심의를 열기로 했다.

이외에도 총회장 후보에 전계현(익산 동산교회) 서기 권순용(동탄 주다산교회) 부서기 김중혁(울산 명성교회) 회록서기 장재덕(영천 서문교회) 부회록서기 진용환(서울 성림교회) 목사, 회계 서기영(대전 남부교회) 장로가 각각 단독 입후보했다.

선관위는 최종 입후보자에 대해 총회 전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설교 및 발제자로 참석하는 것은 허락하되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했다. 또 논의중인 전자투표 방식 도입건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시뮬레이션을 거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위원들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부정 선거 여부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 67개 노회별로 목사 총대 1명과 장로 총대 1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 지킴이 요원들은 후보들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장 등을 방문해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다음 달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북 전주 전성교회를 시작으로 6개 권역별로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회를 연다. 부총회장 선거는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바우빌 오운노리교회(이재훈 목사) 양재성전에서 개막하는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한기연이 풀어야할 과제는…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출범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물밑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한기연 출범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를 살펴본다.

한교연 군소교단 배려 문제가 핵심 쟁점

통합논의에서 한교총과 한교연의 입장차가 가장 큰 것은 대표회장 선출방법이다. 이는 한교연 내 군소교단과 회원단체 인정 여부와 맞물려 있다.

러 군소교단이 공동으로 발언권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1000개 교회 이상의 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로 가지는 안은 이런 배경에서 도출됐다.

반면 한교연에서는 ‘7·7정관

대표회장 선출방법 놓고 한교총·한교연 입장차

양측은 지난 3일 ‘7·7정관을 기본으로 하되 1000교회 이상 교단장으로 구성된 상임회장을 구성하여 대표를 추대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한교총은 ‘1000교회 이상 교단장으로 구성된 상임회장을 구성한다’에, 한교연은 ‘7·7정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한교총을 이끌고 있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그동안 군소교단의 난립과 그에 따른 과열 선거가 연합운동을 저해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

의 정신에 따라 교단 규모를 3개 군으로 나누어 돌아가며 대표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레야만 군소교단에서도 대표회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1인 대표회장 체제를 선호한다.

직원승계 온도차, 사무실 활용은 동의

한교연 내 5명의 직원 승계 문제도 민감한 사안이다. 한교총에 선 선별적 승계를 고려하고 있

지만 한교연은 100%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5층 한교연 사무실을 활용하는 데 이견이 없다. 한교연의 법인 정관변경 및 이사변경 문제도 양측이 의견을 모아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교회 연합의 중요성과 그 정신이 차기 총회장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수될지도 관심이 다. 한기연 출범을 위해 힘썼던 지도자들이 오는 9월 총회에서

대거 총회장직을 내려놓기 때문이다.

전용재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양측이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도력을 잘 계승하고 조직의 역학관계를 고려해 한기연을 출범시켜달라”고 부탁했다.

통합관련 업무를 맡았던 교계의 한 관계자도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만약 통합에 반대하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해당 조직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7일 개헌반대 국민연합 창립총회

동성에 옹호 개헌안 저지 범국민운동 나선다

‘동성에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국민연합)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헌법 개정안 저지운동에 들어갔다.

한국입법학회장이 은선필 홍익대 교수는 이날 함께 열린 학술포럼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개헌안 등 여러 개헌안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한국사회는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허용·정당화하게 된다. 혼인의 성립요건을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해도 동성혼을 허용·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음 교수는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최고 법규범으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고 법규범 효력의 근거 및 해석의 기준이 된다”면서 “만약 동성혼을 해

석상 허용하는 문구가 헌법에 들어가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사적 분야에서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존중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동성혼을 인정하지는 것은 헌법 제정권자이자 개정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명백히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장을 지낸 윤재만 대구대 교수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예이츠를 확산시키는 동성애나 혐오감을 주는 집단성에 소아성에 수간 등은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질 성적 지향으로 두둔하고 획일적 차별금지, 획일적 평등사상을 주장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헌법개정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개헌안에 ‘성평등’ 포함 말라”

성시화운동 지도자 전략회의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민중 목사·공동총재 전용태 장로)는 25일 서울 관악구 해오름교회(최낙중 목사)에서 전국 광역시도, 시군 대표회장 및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시화운동 지도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변호사)장로가 국회헌법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의 성립조건인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한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와 시도, 시군 인권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한국 교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영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과 이병진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은 할랄 단지 반대운동의 성과를 보고했다.

박명룡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대전 학생인권조례와 시민인권조례 폐지 운동의 성과를 보고했다.

최태순 목사(충남 대표회장)와 오종실 목사(충남 삼일회장 겸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운동 진행과정을 보고했다.

최영섭 목사(인천 사무총장)와

이명운 목사(목포인권조례반대위원장)와 박영종 장로(전남 삼일회장)는 인천과 목포시민인권조례 제정 반대운동을 보고했다.

오대석 목사(태백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는 태백 콜앤홀리페스티벌을 소개하고 참여를 당부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중앙 사역을 보고했다. 김 목사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4월 20일 한국 교계의 총의로 설립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이름으로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아 발표회를 가졌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동성애와 동성혼 반대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수교 25주년 기념으로 우크라이나 성시화대회를 개최했다”며 “한국과 우크라이나 국가리더십포럼, 기독교실업인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자녀전도집회, 전도실천, 한국문화공연, 선교사 세미나 및 간담회, 고려인 이주 8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을 통해 북돋움으로 한 나라를 총체적을 변화시키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고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전략회의를 마치고 긴급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헌법개헌안에 ‘성평등’을 포함시키지 말 것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성적지향’ 삭제 개정, 충남 부여에 추진하고

있는 할랄 도축장 반대, 종교인 과제 시행 유보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모임에는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경기도, 대구, 경북 등 전국에서 100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전략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김정식 목사(광주광역시 삼일회장)의 사회로 윤태현 목사(전남 삼일회장)가 대표기도를, 최낙중 목사(서울 대표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고린도전서 10장 8-10절을 본문으로 “기독교인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최 목사는 “최근에 동성애로 인한 성도덕이 무너짐으로써 미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현재 나타나고 여러 악의 세력들만 바라보면서 슬퍼 탄식만 하지 말고 현대판 다윗처럼 일어나야 한다. 동성애와 이단, 이슬람과 공산주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불꽃들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진(전 농림부장관, 삼일고문)장로가 격려사를 자유한국당 기독교회 회장 안상수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김 장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철폐운동 등 그동안 성과를 소개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동성애 동성혼의 입법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재창 목사(경기 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인도로 국민일보와 CBS가 공동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캠페인 ‘나 부터’ 작은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의 창 (83)

선교사로서 요구되는 덕목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우리는 현재 격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 삶의 구조를 송두리 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과업을 누가 주도적으로 감당할 것인가? 선교사들이다. 선교사도 여러 부류가 있다. 앞으로 요구되는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통전적인 사람이다. 하늘의 뜻과 세상의

우리의 내적인 자세로서 주님의 뜻을 살가운데 구현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모든 자양분을 먹고 자라도록 한편으로 내주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갈2:20). 이것이 영성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사고방식이며 교양과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태도이다. 지성은 다양한 지식 간의 소통을 특색으로 한다. 또한 지성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에 확산되어 팽창되는 비범하다. 지성은 작게 보면 문학, 역사, 철학의 세계이며 나아가 사회적 초 가치(super value)로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이에 선교사는 전문가 수준은 아닐지라도 시

능력(ability)이라는 의미가 된다. 즉 감성이란 어떤 대상으로부터 감각되어져 생기는 인식능력을 의미한다. 감정의 느낌 상태를 뛰어넘어 그 곳으로부터 어떤 지식이나 감정과 결합된 앎을 얻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은 영물이다. 말 한마디 안 해도 느낌으로 상대방을 인지하곤 한다. 인간관계가 틀어진 것은 사실적 문제보다 감성

적 야성이란 한마디로 개척적이고 도전적이다. 세례 요한은 야성의 사람이었다.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을 입고 석축을 먹으며 사명을 감당했다. 모세도 광야 생활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를 쓰실 수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심과 인동초 같은 야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 속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한결같은 야성의 사람이었다. 야성이 없는 사람은 모험을 두려워한다. 저들은 창조적 소수로 살 수 없다. 선교사신이란 결국 '야성의 회복'이다. 저마다 보란 듯 센터를 건립하고 그 곳에 막걸을 박기 쉽다. 재정이 들어간 건물은 인간을 포획하기 쉽다. 관성의 법칙 따라 야성을 잃고 안주하게 된다는 말이다.

중세교회를 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지 모른다. 결국 건물위주의 사역은 영적 생명력을 잃고 대신 제단 위엔 도금된 십자가만 유난히 반짝일 뿐이다. 그곳에서 현실도피의 어떤 같은 몽환적 기도 문들이 넘쳐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힘을 잃어 갔다. 교회와 세상을 향해 서릿발 같은 선지적 나팔을 불어야 한다. 야성의 회복은 예언적 정신과 혼을 되찾을 수 있는 절경이다. 선교사의 모델은 화려하고 명성 있는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야성의 사람, 세례요한이다.

맺음 말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풍성한 결실을 낳은 선교가 될 수 있을까? 답은 수종드는 사역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선교사는 영성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영성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결씩 내딪는 것이다. 지성은 세상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다. 감성은 너그럽게 모든 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는 마음이다. 야성은 세상을 돌파하는 강한 의지력이다. 우리 인간은 여기 4가지 덕목을 일시에 갖추기가 어렵다. 그렇다할지라도 목표와 원칙을 갖고 자기 연약한 부분을 개발해갈 때 많은 진보가 있기 마련이다.

중국 속담에 "天下無難事, 只怕有心人 하늘아래 어려움이 없나니, 오직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 있느니라" 라는 말이 있다. 매사에 하루 3시간씩 3년을 경주하면 기초가 쌓이고, 10년을 경주하면 전문가가 되고, 30년을 경주하면 장인(匠人, artisan)이 된다. 상대적인 이 세대에 누가 절대적 복음으로 승부할 수 있을까? 영성, 지성, 감성, 야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다. jrsong007@hanmail.net

선교란 변하는 세상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과업을 위해 하나님은 준비된 영적 일꾼을 필요로 한다 선교사는 영성, 지성, 감성, 야성을 두루 소유할 때 이상적이다

흐름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음을 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교사는 영성, 지성, 감성, 야성을 두루 겸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 균형 잡힌 선교를 할 수 없다. 이는 비단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시대 영적 지도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에게도 해당된다.

아차피 사역은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 사역은 그 사람 됨됨이와 믿음 이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땅에 영적 지도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아래의 4가지 덕목을 생각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특별히 소명에 따른 자기 은사와 개성을 살리되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건강한 선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이다.

1. 영성(靈性, Spirituality)

선교사는 영성의 사람이어야 한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는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영성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경적인 영성은 무엇을 보거나 체험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것에 있지 않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이 순종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나온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빼놓고 영성을 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늘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맡겨진 영혼들을 살피고 이끌어야 한다. 선교사가 깊은 영성이 없는 사역이 아니라 사역이 되기 십상이다.

2. 지성(知性, Intellectuality)

선교사는 지성의 사람이어야 한다. 현대는 정보와 지식 절단의 시대이다. 지성이 없는 세상과 현대인을 이해할 수 없다. 지성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지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그 상황에 적응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성질을 말한다. 지성은 진리에 대한 긍정적

대의 조류와 격변하는 지식의 유용성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둘러싸여 있다. 만일 지성이 없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지혜로운 농부는 생명의 씨를 심기 전에 토양을 가꾼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는 지성을 개발하는 자이다.

3. 감성(感性, Sensibility)

선교사는 감성의 사람이어야 한다. 아무리 논리가 강해도 감성이 없이는 상대방과 교감을 이룰 수 없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감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말 큰 사전을 살펴보면 '외계의 대상에 의하여 감각, 지각, 표상을 얻는 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감성(sensibility)이란 오감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을 느끼고 지각하는(sense)

의 힘이 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는 후덕한 감성을 지녀야 한다. 아무리 사역이 크고 화려해도 선교사에게서 풍기는 이미지가 세속화되어 있을 때 문제가 크다.

선교사는 결코 기업주처럼 권위적인 사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논리적인 사람, 얼굴에 표현이 없는 목석같은 사람, 사람보다 일을 중시하는 피골이 상접한 사람, 늘 바빠 움직여 여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선교사는 주님으로부터 파송 받은 영적 대사이다. 그리스도가 자아와 사역의 주인이시다. 따라서 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분의 향기를 풍기는 감성의 사람이어야 한다.

4. 야성(野性, Rusticity)

선교사는 야성의 사람이어야 한다. 인간이 야성을 잃어버릴 때면 곧장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기 쉽다. 야성이란 무엇인가? 자연 또는 세련되지 못한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다. 기독교

통일선교 기도소식

위기의 순간에 통일의 미래를 말하자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미국 중부시각 오전 9시 41분(한국 시각 28일 오후 11시 41분) 북한 자강도 무평리 지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6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에 평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오랜 동안 기다린 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을 제안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새롭게 해나가길 원했습니다. 인권문제에 헌신했고, 북한 실험탄자녀로 성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국제관계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적극적인 평화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모든 일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직전의 미사일보

다 정점고도가 약 900킬로미터가 늘어난 3천700킬로미터, 비행거리가 1천킬로미터까지 비행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제안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거부된 것에 대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지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14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02)749-9228, Fax: (702)749-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공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벨앨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주일예배: 오후 8:00 영, 위, 윤, 충, 고, 동, 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10:45 중, 고, 동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오후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11: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ps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228,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com	앵커리지델린톤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전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델린톤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해: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노루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전일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45 금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선교 펴기

아르헨티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위에 늘 풍성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저희들과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격려와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귀한 선교헌금으로 협력해 주시는 목사님과 동역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선교현장의 영혼구원과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 현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선 이후에 마드리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량 해고와 엄청난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점점 침체국면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사회 불안과 치안부재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1. 포르모사 위치족 인디오 사역

포르모사의 5개의 지교회(영광과평화교회, 아가페교회, 뉴아가페교회, 조세차교회, 제마 지역의 아가페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라스 로미파의 뉴아가페교회'와 '제마 지역의 아가페교회'는 날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에 담당 사역자는 백인인데, 두 분 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인해 교회들이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교회인 뉴아가페교회의 마리오 목사는 라스 로미파 지역 교회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열심히 지역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라스 로미파 지역 교회 연합회와 함께 연합 부흥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연합집회를 위해서 판 태평양교회 허영모 목사님과 군산 새백교회 목사님들과 총 8명의 선교팀들이 함께 오셔서 4박5일 동안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와 지역 연합부흥집회를 갖게 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영적 성장을 가져 오게 될 것이며, 또한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 현지인 목회자 지도자 사역

부에노스에서 1500km 떨어진 포르모사의 3개 지역(라스 로미파 지역, 라구나 제마 지역, 폰타냐 토바 지역)에서 현지인 지도자 목회자 사역을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하여 분기마다 인턴십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에서 7-8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말씀을 기초한 영성과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3-40km 떨어진 지역에서 와서 훈련받는 목회자, 지도자들을 보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장거리 사역이라 매우 힘들고 피곤하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강의를 참석하여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11일까지 있었던 목회자,

지도자 사역에 참석했던 현지인 목회자, 지도자들이 자신해서 선교헌금을 하여 저희들의 사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전달하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선교사님이 12년 동안 이 지역을 섬기시면서 자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헌신하셨는데, 이제는 자신들도 선교사님에게 조그만 힘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르헨티나가 엄청난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과 휘발유 가격 인상됨으로 부담이 컸었는데... 현지인 목회자, 지도자들이 선교헌금을 해줌으로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CDP 어린이 개발 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주 250명의 아동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30명의 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명의 교사들이 매주 교육과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한 가운데서 아동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자신들의 생활이 어려움

부에노스 근교에서 기아대책의 후원으로 매주 250명의 아동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어린이 예배와 분반공부와 활동 그리고 급식을 실행하여서 아동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빈민촌의 아동들이 많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약과 알코올중독에 빠진 부모님과 사는 아동들... 편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이 30%가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 아동들이 늘 배고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역을 통해 아동들의 영적성장과 사회 정서적, 교육적, 신체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고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들의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매년 2회에 걸쳐서 식량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130개의 식량봉사를 만들어서 전달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에 차량을 집 앞에서 권총강도에게 강탈당한 후에 마음이 허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위해서 목사님들과 동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2014년도에도 현지교회 저녁 집회



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함으로 인해 아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동들이 계속 늘어나지만 아동들의 교육할 수 있는 공간과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없으므로 인해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 아동 사역을 위한 장소가 좀더 넓은 공간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 교회 개척 준비

부에노스 근교 지역인 뽀빠자 지역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우범지역이며 마약과 알코올과 사교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 개척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개척을 통해서 영혼구원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양육과 훈련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5. 열악한 가정에 식량 지원 사역

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권총강도에게 차량과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순간적으로 강도에게 당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갈수록 권총강도와 납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빈민지역이나 우범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제는 도시나 지방이나 빈민지역이나 우범지역이나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회, 경제, 치안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각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2. 5개의 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3. CDP 아동들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서 (장소, 운동시설)
4. 6개의 지교회(뽀빠자 지역)의 개척이 잘 진행되도록
5. 현지 목회자, 지도자 사역을 위해서
6.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메일:luis-chang@hanmail.net

통일선교 기도소식

(13면에서 계속)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관점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제재로서 대응하는 모습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대부분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수많은 평화적 제안을 물리치고, 북한 체제 존립을 위해 핵무기와 화학무기,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제재, 중국의 중간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8월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으로 긴장과 위기상황이 커진 상태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칫 야기될지 모르는 군사적 충돌은 남북한과 주변 국가의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하기 무서운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기가 닥칠 때 움추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움추려 든 상태가 지속되면 긴장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경우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부터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기의식과 집착은 주변인들로부터 시작된 잔인한 숙청, 탈북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포와 탄압행위,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는 지속적인 무기 개발과 위협 등으로 계속 파괴적 표출을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의 경우도 강대국으로 북한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가지면서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자국이 미칠 위협과 피해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모습으로 큰소리를 치면서 경고하는 하지만, 정작 내적으로는 자국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움추려 들어 발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전히 북한 문제에 대해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을 근거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동안 중국은 국제적 제재 속에서도 오히려 뒤로 북한은 지원을 했을까요? 동맹국으로 명분과 북한의 자원, 태평양을 향한 관문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북한 정권이 인민을 억압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 등의 무기개발을 통해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단순히 미치광이 정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목표와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유산을 근거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김정일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꾸준히 국가적 목표로 추진해온 것입니다. 백두산 혁명혈통과 해방의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왔고 통제해왔던 북한은 언제든 모든 나라 백성의 목숨을 사용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정권입니다. 수백만이 굶주림과 질병에 죽어도 무너지지 않던 북한정권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에도 꾸준히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모든 사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의 성공이 이제 바로 눈앞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악화시키는 북한 정권은 엄청난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목표를 향해 한발 한발 전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청사진을 정하고 꾸준히 노력을 진행한 부분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꾸미는 존재가 더 현실적이고 더 치밀하게 진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반도가 위기가 점점 커져가는 순간에 통일(민족)의 바른 청사진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혼란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예상하며 바른 미래상을 더 치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한반도 위기가 지속되고 국제 갈등이 변화무쌍한 상황에서도 이제 한국 국민이나 해외 한인교포들에게 옛 일제시대나 독재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숭고한 민족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고민하는 이유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연약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알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망쳐온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더 철저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죄, 교회의 죄, 사회의 죄악을 분별하고 성결하기 위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시카고에 있었던 미국 유학생 수련회인 코스타에서 한 찬양을 통해 다시 다짐했습니다.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 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을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이 찬양은 복음적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면서, 아직 기회 있을 때에 씨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 하나 되는 복음적 통일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위기의 시간이 열매의 시간으로 바뀌는 그 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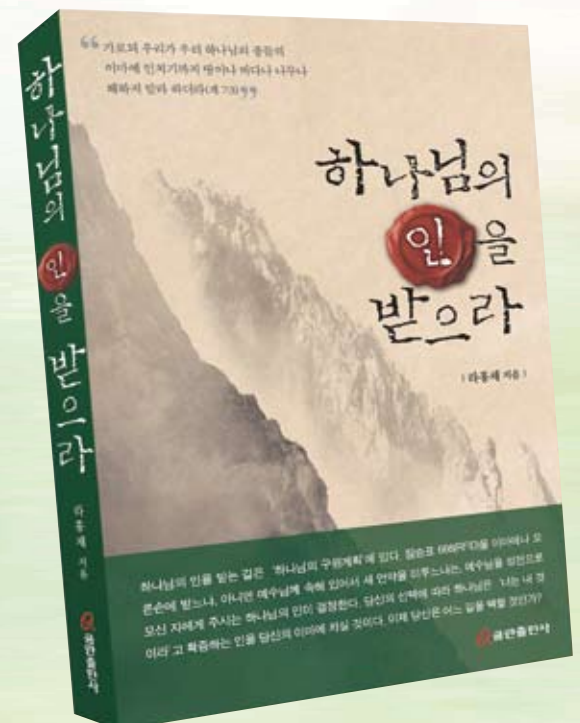
NIM 대표 임현석 목사 드림
prblessnk@gmail.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38)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22)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이대학교국제협력과 교수)



우리는 지금 한인 기독교 교육을 위한, 그리고 한인 기독교교육에 의한 비평적 사회학적 관여(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해(criticism toward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그리고 한인 기독교교육에 의해(criticism by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우리 안에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하지 않고, 적극적인 일련의 관여(Involvement)를 하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에서 “물질 만능주의(Mammonism)”와 “부정부패(Corruption)”, “인종차별(Racism/Racial Dis-

crimination),” “문화간 차별(Cultural discrimination),” 그리고 “남녀차별 혹은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Sexism),” 그리고 “동성애자 차별(Discrimination by 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인 기독교 교육이 비평적으로 관여해야 할 그 마지막 이슈로서 “미국 학교교육(공교육)의 실패(Failure in the Public Education of the States)”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에서는 공교육의 실패를 “기본적 학업력 성취의 실패”와 “개혁을 담보할 대안적 동력 제시 실패”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패와 상호작용을 해온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 재구성주의 교육, 그리고 실존주의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행동주의 교육 모델은 인간을 지나치게 획일적인 존재로 이해하였습니 다. 어떠한 조작과 반복적 훈련에 의해서만 교육이 가능한 존재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간에게 발전하고 성숙할 정신, 영, 마음, 그리고 내적 자아 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행동주의 교육에 있어서는 선험과 약함, 질서와 사랑, 바램, 두려움, 소망, 희망, 믿음, 신뢰 등 이 모든 인간의 내적 존재와 연관된 감정들이 단지 조작된 혹은 조건화된 행위들로 이해되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을 “복잡한 동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교육은 교육자들로

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것은 몰라도 복잡한 사고들을 요하는 것은 행동주의 교육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에 대해 과소평가했다는 것(인간의 행위가 생각만큼 잘 조작되지 않는 것을 놓쳤다는 것), 인간을 복잡한 동물로 개념화한 것은 매우 불쾌하고 또한 우울한 일이라는 것(인간의 존엄성, 자유, 교유 함 등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또한 통제하고 조작하는 자들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것(행동주의 교육자들 자신들과 같이 행동과학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콘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명백한 오류이므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과 통제와 훈련을 통한 교육을 내세웠던 행동주의 교육은, 부분적으로 일정하고 기계적인 훈련에 효과를 가져왔는지 모르나, 인간의 자율성 및 존엄성을 무력화시키는 큰 오류로 인해, 전체적인 교육의 철학적 근거가 되어 “기본적 학업력 성취”와 “개혁을 담보할 대안적 동력 제시”를 일구어 낼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교육에서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 재구성주의 교육, 그리고 실존주의 교육, 또한 행동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모델들이 나타나고 변형하고 쇠퇴하고 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교육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조작 통제 훈련 강조 행동주의 교육은 학업력 성취와 개혁적 동력 제시 못해 전통주의 교육은 기본적 학업력 성취 성공 불구 실제적 실천적 교육에는 실패

것은 전통주의 교육 모델입니다. 전통주의 교육은 “전통”의 가치들 혹은 “전통적인” 가치들(신념, 도덕률, 도덕적 행위들)에 교육의 바탕을 두는 교육이라고 보면 가장 이해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즉 전통주의 교육은 오랜 세월을 통해 “좋은” 교육이라고 분별되어온 교육실천(예를 들면, 철학, 과학, 고전 등의 전통적인 지식과 기술들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과정, 자기 훈련, 권위에 대한 존중, 학업력 성취에 대한 높은 강조 등)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통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학생들이 높은 학문성을 추구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도덕적 인간을 육성할 수 있는 탄탄한 도덕적 가치와 행위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숭고한 인간(Noble man)”을 길러내고자 했으며, 그리 할 수 있다고 믿어

왔습니 다. 이러한 전통주의 교육은 사실 “기본적 학업력 성취”에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은 일구어 내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는 단지 해당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일부 선택 받은 학생들을 위한 엘리트주의 교육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실제로 전통주의 교육을 실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이비리 그 대학들을 비롯한 미국의 우수한 대학들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엘리트 기문 출신의 학생들만을 교육하는 그들만의 리그, 그야말로 엘리트주의를 표방해왔습니다. 이에 전통주의 교육은 이 사회와 그 안의 깨어지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을 담보할 대안적 동력 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불평등이라는 깨어짐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기본적 학업력 성취”와 “개혁을 담보할 대안적 동력 제시” 이 모두를 할 수 있는 교육 모델, 즉 “미국 학교교육(공교육)의 실패(Failure in the Public Education of the States)”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교육 모델로서 “기독교 전통주의(Christian Traditionalism)” 교육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우리 한인 기독교교육이 어떻게 이러한 교육에 비평적으로 관여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삼하16:5-8)

지금 다투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아들 암살범에게 반역을 당해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시바에게 사기를 당하고 설상가상으로 시므이가 나타나 다투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그 순간입니다. 주목할 것은 신실한 성도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애매하고 욕을 먹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이가 다투

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이유를 들 어보면 다투가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 다. 그런데 지금 시므이는 사울왕가의 식구 들을 죽인 사람이 다투이며라 저주하고 있 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없으심에도 고난 을 당하셨습니 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더욱 기뻐하고 즐 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상급이 크 기 때문입니다.

화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삼하16:9-11)

시므이가 사정없이 다투를 저주할 때 다투 은 시므이의 비방을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로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비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임을 그대로 받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다투는 처음부터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있 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중 심으로 모든 일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 리는 내 자신에 대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남에게 욕을 먹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다투는 어떠한 비방과 욕도 다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투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비방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수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삼하16:12-14)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 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 다. 다투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장 많 은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 하신다고 하는 이 단순한 확신이 있었기 때 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 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이 먼저 택해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다투는 그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주실 것을 바라본 것입 니다. 그 누구도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 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목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삼하16:15-21)

성도는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후세라는 사람 은 다투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후세는 자기 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쓴 채로 감람산으로 도피하는 다투 왕을 만났습니 다. 그때 다투왕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암살 롬에게 충성하며 제사장들이 사독과 아비아 달을 통해 궁중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전해달

라고 부탁합니다(삼하15:32-37). 그러나 이 렇게 좋은 친구도 있지만 항상 다투의 옆에 있다가 갑자기 암살범의 반역에 동참하는 아 히도벨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 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신앙을 격려하 고 용기를 주며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금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삼하16:21-22)

본문은 아버지 다투왕을 내쫓고 스스로 왕 이 된 암살범이 천하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내용입니다. 대낮에 다투왕의 후궁과 동침하 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악한 암살범 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합니 다. 오늘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 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토 다투에게나 암살범에게나 이와 같더라(삼하16:23)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 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암살 롬이 대낮에 아버지 다투의 후궁을 범할 것 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투에게 말씀하신 사 판이었습니다(삼하12:11-12). 다투는 이 심 판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해 죽을 목숨은 살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축복의 말씀이든지 심판의 말씀이든 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뤄진다

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그냥 되돌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투는 이 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 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0-8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98-999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3(113-270)</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82)2-342-2341~3, 팩스:(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릉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팩스:(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용마루동 17길 29(잠실동)</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49-45 www.shinchon.org</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926-4508, Fax. 2648-4662 서울시 용마루구 월드컵로 50-1 www.anamjil.or.kr</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로 415 www.yanggok.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성4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926-4508, Fax. 2648-4662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p>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이해(중)



역자: 임지석 목사

[역자 주: 본 내용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발행하는 "FORUM"(Volume 24, Number 1:Spring 2017)에 실린 글을 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번역한 것이다.]

3. Solo Christo(through Christ alone)

루터나 쾰링거, 칼빈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요소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확증은 로마카톨릭교회가 구원에 대한 역할로서 지나치게 확신했던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특별히 개혁주의자들은 교황의 권위,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회의 성례, 세례, 참회, 성찬 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카톨릭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혁주의자들의 다른 염려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자들이나 동정녀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는 것이다. 개혁주의자들에게 의하면 인류에 대한 이러한 중보적 능력은 믿는 자들에 대한 유일한 중재자 또는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로 쾰링거는 그의 67조항의 선언문에서 (1523년 토의를 위해 주리히Zurich 시의회에 제출된) 이렇게 말한다. "복음의 요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였고 그분의 겸손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전에 살았거나 지금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개혁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구원의 요소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알려면 다른 네 가지 솔라(solus)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그들은 신학적인 접근의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해 개혁주의자들이 '오직 말씀으로'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의 요소이다.

개혁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계속되는 중요성은 평가절하하기 힘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에 초점 맞춘 신학적 접근의 중심 필수
다원주의나 교회통합주의와 정면 대치, 성부 성령 과소평가
교회는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며 인간 노력이 아님 선포**

을 위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행위와 노력은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해도 그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명적인 역할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개혁교회 영역에서 성자나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경배는 중지되었고 그들의 이미지는 예배 장소에서 제거되었다. 동시에 성만찬과 세례의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뜻하는 표지로 이해되었을 뿐이지 그것들 안에서 또는

그것들로부터 오는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선언은 교회 개혁을 이루는데 예배에서나 신학에 있어서 크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 면에서 교회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첫째,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독특한 역할을 말하는데 이는 다원주의자나 교회 통합주의자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다. 둘째, 어떤 부류의 교회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아버지와 성

구하려는 교회가 증가하는 추세에 확실히 반하는 것이다.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로 라는 확신은 인류가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근본적인 단절을 인정하는 문화와 시대에 그리스도는 많은 때 위대한 도덕적 상징이요 현명한 선생이며 믿음의 대단한 위인이다. 예를 들어 나에게 빠짐없이 교회에 잘 다니는 기독교인 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그녀의 실수나 허물을 죄로 생각하지 않기에 매주 예배 시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 편하지 못하게 생각했다. 그녀와 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었던 상태에서 회복되는 메시지임을 본다. 그리하여 구원의 저자요 요소로서의 그리스도의 강력한 개혁의 선포는 오늘날 높은 의미를 가진다. 교회는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인간의 장점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선포해야 한다.

(by Karin Maag)

4. Sola Gratia(by grace alone)

루터는 시도해 보았다. 그는 승려가 되었고 빈곤과 순결과 복종의 서약도 해보았다. 그는 거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가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했다. 그는 스스로 채찍질도 맞고 잠도 자보지 않았으며 굶어보기도 했는데 한 보고에 의하면 그의 앞 단추가 등골에 닿을 정도였다 한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그분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가 기억하기를 "모든 것이 한 순간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고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말한다. 은혜가 것처럼 달콤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카톨릭 반대자들이 개신교 교인들은 더 이상 선행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연결되는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개혁주의 교회는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싸구려 은혜를 찾는다는 말도 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문 86에서 그 염려를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자신의 장점으로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패역에서 구속을 받았는데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교리문답은 그 응답에서 분명히 말한다. '오직 은혜로'에서 '오직'이란 기독교인의 삶에서 선행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

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참된 믿음을 확인하며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이다. 이점에 있어서 교리문답은 바울

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이다.

'오직 은혜로'라는 구원 교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인류의 조건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며 우리는 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터가 한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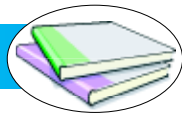
자와 같고 그 바닥에 무의식적으로 누워있는 존재들이다. 이에서 구조 받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자유 하도록 풀어 내주는 것이다. 돌트 경전에 말하듯이 인류는 슬픔의 상태에 있는데 "재생산을 이루는 성령의 은혜

우리는 현재 할 수 있다는 사고가 강한 공연 중심의 사회를 살고 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고 농구장에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상급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일터에서 좋은 급료를 받기 위해 일하며 잘못된 강등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얻기 위한 삶의 와중에 우리 인생의 깊은 실존, 끝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외적인 도움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루터가 500년 전에 다시 발견한 우리에게 은혜가 대단한 이유이다. 우리는 은혜를 가질 자격도 없고 이를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타락한 인생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하려는 것이며 그분이 이를 행하신다.

(by Lyle Bierma)

새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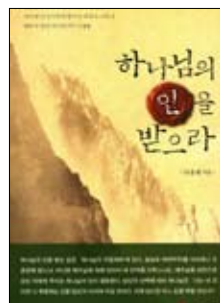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저자 라후체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리즈로 잘 알려진 라후체 목사(뉴욕제자들과 회 담임)가 최근에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라 목사는 "이 책이 성경 66권의

총론임을 확신한다"며 "이 책을 읽는 독자마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길을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책은 1장 구약, 2장 신약에서의

새언약, 3장 이방인의 구원계획(사도행전), 4장 지금 이 시대, 5장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6장 70이레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날 일들, 7장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길, 8장 70이레 시작-바다에서 나오는



집중, 9장 후 삼년 반 마지막 심판, 10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계 19:11-16), 11장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없다, 12장 최후의 심판, 13장 새 하늘과 새

"성경 66권 총론...하나님 곁으로 가는 길 볼 수 있어"

땅, 14장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로 쓰여 있다. 라후체 목사는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갈 길은 두

길로 하나님의 인을 받아 천국에 가든지, 짐승표 666(RFID)을 받아 영원한 유희불 못에 던져지든지 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인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속에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되 교회와 주의 종을 사용하여 구원하신다

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는 것.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간다면(계5:9-10) 새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다(계21:27).

라 목사는 말미에 "이제 당신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묻고 있다.

총 349페이지. 콤팩트판사 발행. ▲책 구입 문의: (917)588-2934 (유원정 기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